

리더십의 비전
국민의 의지

카타르 비전과 의지

저자
칼리드 알 살랄

번역
김재희

감수
주한 카타르 대사관

리더십의 비전
국민의 의지

카타르 비전과 의지

저자
칼리드 알 살랄

번역
김재희

감수
주한 카타르 대사관



سفارة دولة قطر في سيؤول
Embassy of the State of Qatar in Seoul



펴낸 곳:

문화부 - 카타르

출판 및 번역국 - 번역과

이메일: rs@moc.gov.qa

전화: + 974 4402222

카타르 - 도하

저자: 칼리드 알 살랄

번역: 김재희

감수: 주한 카타르 대사관

경영총괄: 세이카 알 쿠와리

번역초판: 2024

납본제도 번호: 2024 / 543

ISBN: 9789927135996

AL WARAQ PRESS

디자인: Ahmed Mohamed Hanafi

한국어 번역에 대한 모든 권리는 카타르 문화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없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 어떤 형태로의 변형을 금지합니다.

헌정

국가 건설에 헌신했던 국민들에게
도전과 역경에 맞서 가장 경이로운 모범과 리더십을 보인 카타르 국민과 리더에게
지중해부터 걸프까지 모든 아랍지역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는 전 세계 인류에게

차례

서문	iii
1 장 천연가스의 왕좌, 천혜의 자원 보전	15
2 장 더 이상 세계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는 아랍인들	71
3 장 스마트파워	91
4 장 정체성이라는 요새	117
5 장 국민과 파워	139
6 장 인적 개발	151
7 장 안보의 오아시스	165
8 장 인류의 존엄성	181
9 장 역경에 대처하기	195
10 장 월드컵 도전	219
에필로그	257



서문

아름다운 카타르에서 카타르 국민들과 몇 년을 보내면서 나는 그동안 틈틈이 관찰하며 적어놓은 것들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카타르의 발전과 성장, 천혜의 자원 유지 비결, 현명한 금융 행정,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넓히려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한 국가의 성공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세계의 시간을 일명 '도하 타임'으로 맞춘 효율적이

고 선구적인 한 국가의 여정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 카타르의 역할과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을 통해 국가의 위상과 존재감은 단지 면적이나 인구수가 아닌 역량과 효율성으로 측정된다는 것 아울러 아랍인들이 더는 세상의 변방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도하에 있는 걸프 기관들 중 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카타르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쿠웨이트를 왕래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카타르가 과연 세계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모험에 뛰어들어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복잡한 분쟁들을 잘 중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카타르는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낸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역할을 성공으로 이끌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카타르는 수단 다르푸르의 격렬한 분쟁을 완화하고 점령지 가자지역을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도록 지대한 공헌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 차드의 정치세력 간 중재를 했으며 도하에서 미국-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나는 짧은 시간 내 이룬 카타르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했다. 단기간에 수많은 빌딩들이 새로 지어졌고 전례 없는 성과들이 쏟아졌다. 하마드 국제공항이 영국 항공 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 스카이 트랙스 어워즈 SKY TRAX World Airline Awards 에서 2022년 1위를 차지함으로써 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카타르항공이 세계 최고 항공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국가 중 하나로서 오랫동안 천연가스 부문 왕좌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 이러한 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또한 카타르가 2022 월드컵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기장을 새로 건설해 넘으로써 아랍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세계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영광을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들, 유의미한 교훈

등에 주목했다. 특히 2010년 12월 미국, 호주, 대한민국, 일본과 같은 쟁쟁한 경쟁국가들을 제치고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다. 당시 카타르에는 월드컵 경기를 치를 만한 경기장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월드컵과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라는 거대한 도전에 거뜬히 맞섰다. 모든 것이 전무했던 곳에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교량 등 인프라 건설까지 긴 마라톤을 결국 완주하고 약속을 지켰다.

그 외에도 혁신적인 알 자지라 Al-Jazeera 방송과 같은 소프트파워이자 스마트파워를 주목했다. 카타르는 세계적인 우수 대학들을 유치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들 간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회의나 세미나를 주최했다. 특히 카타르가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억압당한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우수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사실들에 주목했다. 이 모든 헌신적인 노력들은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로서 카타르의 명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카타르 국민의 자질을 반영했다.

바라건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나의 생각들이 이 나라 국민과 거주민, 방문자, 이 위대한 나라, 현명한 리더, 관대한 국민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리더십의 비전과 국가와 국민들의 의지를 통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칼리드 이브라힘 알 살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His Highness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아미르)

2013.6 즉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His Highness 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근대 카타르 설립자

1995-2013



셰이크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싸니

His Highness Sheikh Abdullah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부국왕(부아미르)

2014. 11 ~

1장

천연가스의 왕좌, 천혜의 자원 보전

천연가스의 왕좌, 천혜의 자원 보전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천혜의 축복을 받은 걸프지역 중심에 위치한 평화로운 반도인 카타르의 여정은 부를 관리하고 자연이 준 축복을 보전하는 방법에 관하여 놀라움을 자아내는 순간들과 심오하고 유익한 교훈들을 알려준다.

일부 국가들이 지나치게 석유자원에 의존하여 유가 변동에 흔들리는 소위 ‘석유의 저주’로 고생하는 동안 카타르는 이 소중한 자원을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의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세계의 관심이 석유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는 반대로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에 포커스를 두고 향후 십년 이내에 천연가스 생산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했다. 1996년 카타르는 북부 유전 North Field 에서 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액화천연가스LNG의 최대수출국이자 연간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최대의 부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하마드 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카타르항공은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범죄율이 낮으며 아랍과 중동지역 최초로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축구경기를 유치한 국가가 되었다.

카타르는 1938년 10월 도하 서쪽 사막지역인 두칸 Dukhan 에서 첫 유정을 발견한 이후, 수많은 도전에 맞서왔다. 시추와 탐사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년간 중단됐고 첫 석유 선적 수출은 석유 발견 이후로도 십년이 더 지난 1949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부를 개발하고 더 많은 자원과 ‘검은 황금’이라는 보물을 발굴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카타르는 사막 한가운데서 추진하던 석유 탐사를 심해로 확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1960년 카타르가 운영한 최초 해상 유전인 ‘알 이드 알 샤르끼 al-Idd al-Sharqi’ 유전에서 석유가 분출되는 성공으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카타르가 천연가스라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것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 거대한 도약이었다. 천연가스는 국가 경제 회복에 가장 기본적인 지류(支流)이자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의 중추 동맥이었다. 천연가스 개발과 발전을 위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노력은 육상과 해상에서 더 많은 자원과 부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카타르가 천연가스부문 왕좌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었다. 이미 1989년, 북부 라스 라판 Las Laffan 산업 도시를 가스 수출 허브로 건설했다. 라스 라판항은 전 세계 최대 가스 단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북부 유전개발은 상대적으로 석유화학산업 개발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다 주었다.

근대 카타르를 설립하고 1995년부터 2013까지 카타르를 통치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국왕의 재위 기간 동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다. 셰이크 하마드 국왕은 자의로 아들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 눈부신 발전과 문화적인 변영을 이끌고 있는 - 현 카타르 국왕에게 왕권을 넘겨준 아버지 국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로써 카타르는 석유가 아닌 최대 단독 가스 유전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 북부 유전은 2000년 일일 평균 생산량이 68만 배럴에서 2005년 일일 76만 배럴로 증가했으며, 카타르는 2006년 전 세계에서 최대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국이 되었다.

숫자들은 가스로 인한 부가 카타르 경제 기본 구조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탄화수소 부분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증가하여 셰이크 하마드 국왕 통치 초기에는 110억 리얄이었으나 통치 말기에 4,030억 리얄까지 증가하여 GDP가 300억 리얄에서 7,350억 리얄로 약 24배 상승하였다.

이 같은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 평균 1인당 GDP가 6만 리얄에서 37만 리얄로 도약했고 2004년 평균 성장률은 11.4%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카타르의 1인당 GDP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카타르가 가스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흑자를 주요 산업 분야 개발에 투자하면서 발전의 물결은 지속되었다. 건설 부문은 17.8%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유통업, 무역, 숙박업, 식당, 교통 및 통신 분야들 역시 성장했다.

정부의 소비 지출은 90억 리얄에서 990억 리얄로 늘었으며 가정 내 소비 지출은 연간 80억 리얄에서 1,020억 리얄로 늘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통찰력 있는 비전과 비상한 사고 덕분에 카타르는 가스를 액화로 변환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오릭스 Oryx 프로젝트와 펄 Pearl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펄 프로젝트는 2006년에 착수하여 2011년 첫 수출을 시작하며 세계 최대 가스-액화 변환 플랜트가 되었다.

가스로 인한 흑자의 증가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동반하였고 대외무역규모 증가와 무역 수지 흑자와 같은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130억 리얄에서 5,385억 리얄로 꺾충 뛰었으며 수출 증가는 주로 천연가스 생산과 석유 생산 확장과 가격 상승 덕분이었다.

일부 국가는 부패가 만연하였거나 혹은 석유 수익에만 집중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하여 에너지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잃었다. 카타르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현 국왕의 리더십 아래 석유 수익을 교육과 의료, 제조업 등과 같은 인적 개발에 투자하거나 흑자를 경제 대국과 같은 국외 투자에 집중하는 독보적인 행보를 지속했다. 이 모든 것은 수입원 다각화와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가격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인한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현명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지난 시간들은 이러한 전략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보여주었으며 현재까지 거둔 성과는 카타르가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 왔음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독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부 유전 North Field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및 수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유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유전에서 천연가스와 파생상품들을 개발, 생산 및 유통하기 위하여 1984년 설립한 카타르 가스社가 운영하고 있다.



라스 라판 LAS LAFFAN 산업도시

세계 최대 가스-액화 변환 플랜트가 있으며 도하 북동부에서 80km에 위치해 있다.



카타르 나킬라트 NAKILAT 社가 운영하는 선박

2004년에 건조되었으며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공급 체인의 기본 운송 수단을 대표하고 있다. 규모로는 세계 최대 함대이다.



카타르 운반선의 초대형 함대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적적인 발전

마치 반짝이는 터키석 목걸이처럼 야자수로 둘러싸인 수도 도하의 모습을 보라. 에너지라는 천혜의 축복은 카타르의 기적적인 발전과 놀라운 도시 건설 붐을 반영한다. 현대와 근대의 모습을 한눈에 보면 도하의 특징들은 특히 코르니쉬를 따라 알 다프나 Al Dafna 지역 근처의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불과 수년 사이, 황량한 사막이었던 곳에 건설된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건물들과 금융 센터와 비즈니스 센터들은 카타르가 에너지라는 축복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현재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고속 발전 르네상스를 이루고, 현대화 플랜트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새로운 것이 건설되거나 개발되거나 확장되고 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 장면같이 수도 도하의 하늘을 수놓은 스카이라인은 카타르의 근대화과 도시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드러진 상징이다. 이들은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 통치 기간에 카타르의 비약적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 국왕은 걸프 서쪽 알 다프나 지역에 무역 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와 같은 고층 빌딩들 건설 착수를 지시했다.

자연은 카타르의 원대한 꿈에 기꺼이 순응하여 아라비아만의 상당한 부분을 준설하여 도시를 재생하도록 했다. 이 지역을 알 다프나(준설된 토지)로 부르게 된 이유다.

이 지역은 수도 스카이라인의 눈부신 실루엣으로 남아 있으며, 천혜의 축복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발과 현대화를 위해 추진된 투자의 증거다. 이 지역은 카타르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무대에 주요 국가로서 편입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에너지 수익은 에너지, 운송, 제조업에서 엔지니어링, ICT까지 모든 분야에서 단지 가장 최고의 기술과 역량으로 강대국과 경쟁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초거대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데에 투자되었다.

1993년에 설립한 카타르항공은 카타르 국영 항공사이며 걸프국민들과 아랍 국민들에게 지난 수년간 최강의 경쟁사들 속에서 세계 최고 항공사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 수백 대의 여객기와 화물항공기를 보유한 거대 함대로서 2019년 기준 전 세계 160개 이상의 노선으로 취항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가 되었다.

카타르의 건설 붐은 2005년 하마드 국제공항 건설 착수로 이어졌다. 하마드 국제공항은 2014년 4월에 개장하여 현재 이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공항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도하 공항이 주요 공항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카타르는 2011년 도하 메트로를 포함한 카타르 철도 네트워크 프로젝트 Qatar Rail 에 착수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도하 메트로, 루사일시티 Lusail City 경전철과 승객과 화물용 장거리 철도가 포함되었다. 이 모든 것은 확장과 성장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가진 전략적인 사업들이었다. 카타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거주민 모두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동반하여 카타르는 세상을 향해 더 큰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7년 신 도하항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신 도하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로서 2015년에 완공되었으며 이 때 명칭을 하마드항으로 변경되었다.

카타르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완수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거대 워크숍으로 변모했다. 그 중 두드러진 프로젝트는 카타르 컨벤션 센터 건립이었다. 중동 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2011년 완공되었다. 그 외에도 2005년 12월 착공한 ‘루사일’ 미래 도시는 가장 최고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도 자랑거리다.



‘알 다프나’ 지역의 과거

계단식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은 셰라톤 호텔의 모습이 80년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단독으로 보이고 있다.



‘알 다프나’ 지역의 현재

금융 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 건물들은 카타르가 자연이 부여한 자원을 개발과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잘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하 시티 센터

2001년 개장한 카타르 최초의 쇼핑센터



시티 센터 건물

세계적인 호텔들과 비즈니스 센터 및 각종 기관, 정부 부처들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



카타르항공

국적기이자 지난 수년간 세계 최고 항공사로서 카타르가 월드 클래스의 항공사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활용했는가에 대한 생생한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1993년 3대의 임대 항공기로 설립하였으나 2019년 기준 전 세계 160개 이상의 노선에 취항하는 290대의 함대를 보유한 항공사로 성장했다. 총 6 차례(2011년, 2012년, 2017년, 2019년, 2021년) 세계 최고 항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스카이 트랙스SKY TRAX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전 조치 감사에서 5성급 인정을 받은 최초의 국제 항공사다.



미국 보잉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 체결

아크바르 알 바키르 카타르항공 CEO(오른쪽), 2022년 1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십대의 화물 항공기 구매로 미 보잉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계약 체결 직후



수도 도하

최신 건물들로 활기찬 현대 도시

정상에 안착하기

카타르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현 국왕의 통치 아래 가스부문의 왕좌의 입지를 강화하고 약 1,050억 리얌을 투자하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을 연간 7천7백만 톤 생산에서 64% 정도 증가하여 2025년까지 1억 1,100만 톤까지, 2027년에는 1억 2,600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또 한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바로 2019년 초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과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이 중요한 분야에서 카타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석유보다 친환경적이며 청정한 에너지 자원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OPEC 기구를 탈퇴하기 전 카타르는 가스 생산 및 수출 대기업인 라스가스RasGas와 카타르 가스 Qatar Gas를 카타르 가스 Qatar Gas 로 합병하고, 2016년 12월 업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카타르 가스 Qatar Gas 를 세계 최대 가스 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약 20억 리얌의 운영 경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한편, 2019년 3월, 북부 석유社인 North Oil Company 가 알 샤힌 Al-Shaheen 해상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에는 움무 알 하울 Umm Al Houf 발전소가 준공되어 단독으로 카타르의 총 전력 수요의 30%, 물 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9년 7월 미국 최대 석유화학단지 개발 계약 및 2020년 10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선 건조계약으로 가스운송함대 확장 등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국외 투자에 착수했다.

성장과 발전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진 카타르의 야망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원유 및 가스 탐사작업에 본격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입원을 다원화하고 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도적인 기업명을 ‘카타르 석유 Qatar Petroleum’ 에서 ‘카타르 에너지 Qatar Energy’ 로 변경하였다. 기업명을 변경한 배경은 토네이도, 홍수, 폭우, 이상 고온 및 북극 빙하의 해빙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때문이었다. 또한, 전 세계가 저탄소 에너지와 온실가스 절감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 역시 지구와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가스부문 왕좌의 자리에 올랐지만, 신재생에너지라는 세계적인 경향에 카타르도 동참하고자 했다. 이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카르사아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The Kharsaa solar power plant 사업》을 들 수 있다. 카타르 최대 전력 수요 중 약 10%에 가까운 800 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카타르는 비전을 실천하고 가스라는 천혜의 축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보전하려는 노선을 고수해 왔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실현한 국가 지수에서 카타르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3%를 기록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약 800개가 넘는 카타르 기업이 새로 설립되었다.

카타르의 부를 에너지 개발에 집중한 투자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국가 발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다수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0년 카타르는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카타르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로, 경기장, 교통, 기타 필요한 인프라에 2,000억 리얌을 책정했다.



바르잔 가스 BARZAN GAS 플랜트 준공

카타르에서는 단 하루도 새로운 개발이 멈춘 날이 없었다. 2022년 3월 중순, 셰이크 타미ม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은 전력 생산을 위해 일일 140억 입방피트(Mcf)의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바르잔 가스 BARZAN GAS 플랜트를 준공했다. 국왕 오른쪽으로 셰이크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총리 겸 내무부 장관, 싸아드 빈 샤리다 알 카아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 서 있으며 왼쪽으로는 카타르 및 세계 에너지 산업계의 선구자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前 부총리 겸 에너지 산업부 장관이 보인다.



카르사아 발전소 The Kharsaa Plant

태양광 기술로 전력을 생산하는 전 세계 최대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카타르 내 최대 전력 수요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카타르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의 다각화

내부적으로 다양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카타르의 나침반은 천연가스 생산과 무역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국가의 수입원 다각화에 기여가 가능한 세계 곳곳의 투자처를 향했다. 이는 제조업, 부동산, 서비스업 hospitality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였다. 그 외에도 국제 시장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성공한 투자자로서 카타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책임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카타르는 대규모 투자를 투자하고 운영하기 위해 확실한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2000년, 국가 예비비 투자를 위한 최고 위원회 The Supreme Council for Investment of state Reserves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경제 투자 관련 최고위원회, 2005년에는 최고위원회 산하 카타르 투자청 Qatar Investment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카타르 투자청은 4,5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국부 펀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카타르 투자청이 전 세계 강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인 투자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2010년 런던의 유명한 ‘해롯

Harrods’ 백화점을 인수한 것이다. 한때 31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그 중 50%가 카타르에 순이익을 안겨주었다.

또한 카타르 투자청은 2012년 파리 생제르맹 FC 지분 100퍼센트 인수 외에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지에서 다수의 유명한 호텔들을 인수했다. 그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런던 고층 빌딩 ‘더 샤드 타워 The Shard Tower’를 인수하고, 그 밖에도 영국 내 런던 ‘카나리 워프 그룹 Canary Wharf Group’, ‘세인스베리 Sainsbury’ 등 유망한 곳에 투자를 추진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카타르 투자의 약 40.8%를 금융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 제조업에 15.1%, 금융 기관에 7.6%, 그리고 부동산 및 에너지 분야에 3.6% 투자하고 있다.

카타르 투자청은 부동산, 서비스업 또는 관광업에 그치지 않고, 독일 폭스바겐 Volkswagen 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 도이치 뱅크 Deutsche Bank, 바클레이 Barclays, Bank of America, Credit Suisse 등 세계적인 금융 기관,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곳에 투자하고 있다.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前 카타르 부총리

前 에너지 산업 장관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국제 유가가 10달러 이하로 급락하던 1992년 에너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카타르의 기적을 가져온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다. 알 아티야 장관은 가스를 액화로 전환하여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스포츠와 청년 지원에 앞장서 1969년 알 샷드 스포츠 클럽 Al Sadd Sports Club 창설에 큰 공을 세웠다.



더 샤드 타워 The Shard Tower

영국 내 카타르 투자 중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다. 카타르 투자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국부펀드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FC

카타르 투자청이 2012년 인수한 파리 생제르맹 FC.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브라질의 네이마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했다.



카타르 금융 센터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금융 및 무역 허브 중 하나로 금융 센터에 등록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카타르 내 기업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타르가 금융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최고의 나라, 카타르

카타르에서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슬로건은 《최고의 자격이 있는 카타르》다. 업무 사무실과 건물 곳곳에서 이 슬로건을 찾아볼 수 있는 데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 국민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2021년 하마드 국제공항이 최우수 국제공항어워드를 수상하게 되면서 구호는 현실이 되었고 카타르 국민과 걸프지역 그리고 아랍지역 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다. 2014년 개항 이후 연간 3,000만 명 이상의 여객 수용 능력을 갖췄으며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연간 이용객 수는 5,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타르는 2017년 하마드항 Hamad Port 사업 준공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해상 관문을 개방하게 되었다. 하마드항은 연간 약 78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마드 국제공항과 하마드항은 카타르의 세계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카타르는 독자적인 행보로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바로 ‘도하 메트로 Doha Rail Metro’의 완공이다. 출퇴근 시 개인 차량을 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다. 2019년 5월 첫 운행 이후, 각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프라, 도로, 교량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카타르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기 위해 수도 도하의 중심부에 건설한 195km라는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알 마즈드 Al-Majd 도로’다. 여기에 최대의 입체교차로이자 최초의 사장교인 ‘사바 알 아흐마드 회랑 Sabah Al-Ahmad corridor’이 있다. 이 회랑의 이

름은 쿠웨이트 국왕이었던 고(故)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 Sheikh Sabah Al-Ahmad Al-Jaber Al-Sabah 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평화와 인류애를 사랑하는 걸프와 아랍지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의 위상을 기리고자 했다.

카타르의 무한한 꿈과 열정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이어져 2010년 카타르 위성 기업을 설립하여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2013년 8월 카타르 최초의 위성 ‘수하일 Es’hail 1호’, 2018년 8월, 방송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수하일 Es’hail 2호’를 발사했다.

이보다 앞선 1999년 카타르는 통신회사 ‘큐텔 Qtel’을 설립했다. 이 기업은 통신 및 기술 분야에서 힘찬 도약을 위해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후에 ‘우리두 Ooredoo’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타르는 1996년 이후에야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2018년 5월 5G 네트워크 출범을 발표하여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공급자가 되었다.

이처럼 통찰력 있는 리더십, 투명한 행정, 국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의지 덕분에 카타르는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투자에 있어 따르고 싶은 모범 사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오고 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H.E. 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부 장관



셰이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브르 알 싸니
H.E. Sheikh Hamad bin Jassim bin Jabr Al Thani
아버지 국왕 통치 기간 중 총리 겸 외교부 장관
(2007-2013)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싸니
H.E. Sheikh Abdullah bin Nasser bin Khalifa Al Thani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의 즉위 이후 첫 총리 겸 내무부 장관
(2013-2020)



셰이크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H.E. Sheikh Khalid bin Khalifa bin Abdelaziz Al Thani
총리 겸
내무부 장관
(2020-2023)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파 알 싸니
H.E. Sheikh Abdullah bin Khalifa Al Thani
아버지 국왕 통치 기간 중 총리 겸 내무부 장관
(1996-2007)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아티야 박사
H.E. Dr. Khalid bin Mohamed Al Attiyah
부총리 겸 국방담당 국무장관

역대 정부들은 카타르가 국민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로 변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오고 있다.



셰이크 칼리파 빈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H.E. Sheikh Khalifa bin Hamad bin Khalifa Al Thani

내무부 장관



하난 무함마드 알 쿠와리 박사
H.E. Dr. Hanan Mohamed Al Kuwari

공공의료 장관



마리얌 빈트 알리 빈 나세르 알 미쓰나드
H.E. Maryam bint Ali bin Nasser Al Misnad

사회발전 및 가족부 장관



셰이크 압둘라흐만 빈 하마드 빈 자심 빈 하마드 알 싸니
H.E. Sheikh Abdulrahman bin Hamad bin Jassim bin Hamad Al Thani

문화부 장관



알리 빈 싸미크 알 마르리 박사
H.E. Dr. Ali bin Samikh Al Marri

노동부 장관



무함마드 빈 알리 빈 무함마드 알 만나이
H.E. Mohammed bin Ali bin Mohammed Al-Manna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리
H.E. Ali bin Ahmed Al Kuwari

재무부 장관



압둘라 빈 하마드 빈 압둘라 알 아티야
H.E. Abdullah bin Hamad bin Abdullah Al Attiya

자치행정부 장관



가님 빈 샤헨 빈 가님 알 가님
H.E. Ghanem bin Shaheen Ghanem Al Ghanim

Awqaf(기부) 및 이슬람 현안 담당 장관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빈 아흐마드 알 싸니
H.E. Sheikh Hamad Bin Khalifa Bin Ahmed Al Thani

스포츠 청년부 장관



자심 빈 사이프 빈 아흐마드 알 술라이티
H.E. Jassim bin Saif bin Ahmed Al Sulaiti

교통부 장관



부사이나 빈트 알리 알 자브르 알 누아이미
H.E. Buthaina bint Ali Al Jabr Al Nuaimi

고등교육부 장관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빈 투르키 알 쉐바이 박사
H.E. Dr. Abdullah bin Abdulaziz bin Turki Al Subaie

환경 기후변화 장관



이브라힘 빈 알리 알 무한나디
H.E. Ibrahim bin Ali Al Mohammadi

사법부 장관 겸 내각국무장관



셰이크 무함마드 빈 하마드 빈 까심 알 압둘라 알 싸니
H.E. Sheikh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Abdullah Al Thani

통상산업부 장관



싸아드 빈 샤리다 알 카아비
H.E. Eng. Saad bin Sherida Al Kaabi

에너지 담당 국무 장관

2024년 카타르 내각 최신 수정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파 알 싸니

H.E. SHEIKH ABDULLAH BIN KHALIFA AL THANI

前 카타르 총리

前 내무부 장관

1996-2007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파 알 싸니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즉위한 다음 해인 1996년 카타르 총리로 취임했다. 이 시기에 카타르는 현대 국가 건설에 착수했으며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파 알 싸니는 취임 후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11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셰이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브르 알 싸니

H.E. SHEIKH HAMAD BIN JASSIM BIN JABR AL THANI

前 카타르 총리 겸

외교부 장관

2007-2013

이 외에도, 셰이크 하마드는 1996년 설립한 최고국방위원회 Supreme Defense Council 위원, 1998년 구성된 예루살렘 지원을 위한 카타르 상설위원회 Qatar Permanent Committee for the Support of Jerusalem 의장, 1999년 설립된 상설헌법위원회 Permanent Constitution Committee 위원, 2000년 구성된 가족위원회 Ruling Family Council 위원, 2000년 구성된 국가 예비비 투자를 위한 최고위원회 Supreme Council for Investment of State Reserves 위원 등 다수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싸니

H.E. SHEIKH ABDULLAH BIN NASSER BIN KHALIFA AL THANI

前 총리 겸 내무부 장관

2013-2020

카타르 국왕이 추진한 담대한 계획과 프로젝트, 그리고 야심 찬 전략 실행, 국가에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인프라 개발, 경제 발전 및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을 주관했다. 그 외에도 총리로서 내각 발전을 위한 리더십의 비전과 방향에 따른 국가 전략을 실행했다. 의료 시설, 보건 프로젝트, 병원 개발 계획을 관장했으며, 주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최고 사양에 맞춰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여 완성될 것을 강조해 왔다. 안보분야에서 쌓아 온 그의 경험은 카타르가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기여했다.



셰이크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H.E. SHEIKH KHALID BIN KHALIFA BIN ABDULAZIZ AL THANI

前 총리 겸

내무부 장관

2020-2023

셰이크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는 2020년 1월부터 총리 겸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당시 카타르는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큰 도전들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도전이 2022년 FIFA 월드컵 FIFA Qatar 2022 개최였다. 이어 전 세계 의료와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과 2022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하마드 국제공항 Hamad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H.E. 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무부 장관

2023. 3~

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라는 정부 수장이자 수석 외교관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수많은 국무를 담당했다. 외교 정책 수립과 수행, 양자 및 다자간 전략적 관계 수립 성과 등 다수의 임무를 수행했다. 국제 분쟁에서 비폭력 결의안 추진을 통해 글로벌 평화와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 외에도 카타르 개발 펀드 Qatar Fund for Development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했다. 2014년, 카타르 펀드 성장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감독했다. 동 기간, 초등 및 중등교육, 글로벌 의료 이니셔티브, 경제 성장과 같은 개발을 위한 자원 재분배에 집중했다.



하마드 국제공항

2021년, 2022년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



하마드 국제항

글로벌 무역 항구들을 향한 카타르 해상 관문



도하 메트로

카타르 철도 기업 ‘레일 Rail 社’는 2019년 5월 3개의 노선을 갖추고 37개 정류장을 포함하는 총 75km의 운행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인 운전 시스템을 갖춘 전철 중 하나다.



도하 메트로 내 골드 클래스 차량



도하 전철역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철역으로 건설되었으며, LED 조명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있다.



미슈립 MSHEIREB 트램

대중 교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일환



5G 네트워크

카타르는 2018년 5월 전 세계 최초로 5G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두 Ooredoo 社’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5G 네트워크를 런칭하였다. 카타르는 ‘큐텔 Qtel’이라는 통신사를 설립하여 1999년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다. 지난 2013년 ‘우리두 Ooredoo’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대 성공을 거두었다. 카타르 대내·외에서 수백만 고객과 함께 십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통해 확장하는 추세다.



수하일 셋 ES'HAILSAT

카타르 인공위성 수하일 셋 Es'hailSat 은 2010년 통신 목적의 인공위성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사진은 2018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 센터 (Kennedy Space Center) 에서 방송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해 카타르 인공위성 수하일 2호 Es'hail-2를 발사하는 모습



카타르 공공사업부 ‘아슈갈 ASHGHAL’ 설립

인프라와 공공 기관 건설 기획 및 추진을 위해 2004년 공공사업부 ‘아슈갈 ASHGHAL’ 을 신설하였다. 공공사업부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25km 이상의 아스팔트, 32km 이상의 최장길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또한, 동시에 66개의 국적이라는 최대 국적으로 나무 심기에 참여한 기록도 갖고 있다. 사진은 카타르 북과 남을 잇기 위해 건설된 195km에 달하는 알 마즈드 Al majd 도로의 모습



무와쌀라 MOWASALAT 운수회사

무와쌀라 MOWASALAT 社 (Karwa) 는 2004년에 설립되었다. 국영 기업으로 개인 및 대중 교통 솔루션과 대형 버스와 택시를 통해 대규모 행사를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 수자원 전력 공사

카타르 수자원 전력 공사 ‘Kahrama Qatar’ 는 카타르 국민의 전력 배분 및 보수, 수자원 공급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되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기와 물을 공급하며 2030년까지 글로벌한 발전에 발맞춘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면서 Kahrama 를 고객 서비스와 우수한 품질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추진 중이다.

역량 발휘

카타르는 숨겨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기존의 에너지, IT기술, 통신 및 위성 분야에서 걸프지역에서 새로운 시장 개발 투자로 선회했다.

카타르는 관광 산업에 집중했다. 사막과 해변, 호텔, 월드 클래스의 서비스, 그 밖에 박물관, 갤러리, 문화유산 명소 등 관광지에 막대한 역량을 투입했다. 전통 시장 ‘수크 와키프 Souq Waqif’, ‘카타라 Katara 걸쳐 빌리지’, 카타르 국립 박물관, 이슬람 박물관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관광 명소는 물론 카타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관광위원회를 설립했다.

씨라인 Sealine 과 쿠르 알 우다이드 Khor Al Udaid 를 비롯한 약 563km에 달하는 카타르 해안선 개발도 추진되었다. 둔베이싱과 수상 스포츠 및, 모래 둔덕 한가운데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윈터 캠핑이 주는 즐거움은 수많은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카타르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간소화 등 실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80여 개 국가가 카타르에 입국하기 전 사전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관광객에게 가장 개방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카타르의 서비스업은 중동지역 서비스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카타르는 떠다니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숙박 선택권 제공이라는 특별한 관광 경험을 통해 대형 크루즈 선박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진입하게 되었다.

‘카타라 호스피탈리티 Katara Hospitality 社’는 카타르 내 최대 숙박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 기업은 42개의 호텔을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60개 호텔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은 현재 4개 대륙 12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스포츠 스타, 브랜드가 참여하는 각종 축제, 쇼핑, 갤러리 및 컨퍼런스, 기타 행사 개최 등 괄목할 만한 확장은 관광분야의 성장을 잘 보여준다.

카타르의 대표적인 정기 행사로는 쇼핑 박람회, 식음료, 열기구, 뮤직 페스티벌, 모터쇼, 도하 보석 & 시계 박람회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들이 연이어 개최되어 카타르는 전 세계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



잊지 못할 관광 체험

윈터 캠핑 시즌이 되면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 전통 텐트 안에서 카타르 고대 문화유산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카타르 사막 모래 둔덕과 심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드벤처와 스포츠



쿠르 알 우다이드 KHOR AL UDAID 비치

도하 남동쪽 78km에 위치해 있으며 중요한 카타르 랜드마크 중 하나다. 수려한 경관과 모래 언덕(沙丘)으로 유명하며 최상의 캠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카타르는 자크리트 Zekreet, 수마이시마 Sumaysimah, 알 다키라 Al Dhakira 등 다수의 해변을 갖추고 있다.



알 다키라 자연보호구역 ALZAKHERAH RESERVE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이며 맹그로브 mangroves 나무들이 숲처럼 무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녹지.



카타르 야생동물

아라비아오릭스 oryx leucoryx, 가젤, 다양한 철새 등 동·식물 및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자연보호구역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알 다키라 자연보호구역 ALZAKHERAH RESERVE' 과 '쿠르 알 우다이드 Khor Al Udaid', '알 샤하니야 Al Shahaniya (유명한 낙타 경주장이 있다-웁긴이)', '알 마스하비야 Al Mashabiya 자연보호지역' 등이 유명하다.



알 샤하니야 AISHAHANIYA 자연보호지역

오릭스 가젤이 카타르 내 가장 유명한 야생 동물 중 하나다. 특히 카타르항공의 로고로도 유명하다.



알 두사리 ALDOSARI 자연보호지역

카타르 내 야생 동물 서식지로 유명한 곳



암석층 ROCK FORMATIONS

라스 브룩 자연보호구역 RAS ABROUQ RESERVE 에 있다.



라리끄 자연보호구역 Laariq RESERVE

매년 <the Qalayel Hunting Championship> 대회가 이 곳에서 열린다. 특히 고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사냥을 할 수 있는 대회로 가장 유명한 대회 중 하나다.



알 마스하비야 Al MASHABIYA 자연보호구역



카타르 관광청 (QTA)

카타르 관광청은 카타르를 대형 관광 크루즈의 목적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도하는 아라비아만 관광 거점이 되었다. 해상 관광 분야는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2026년 즈음에는 연간 3억 5,000만 리얄(약 9,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 와크라 시티

카타르 수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조깅과 산책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앉아서 일몰을 바라보며 차, 커피, 카락 티 Karak tea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수크 와키프 SOUQ WAQIF 전통시장

카타르 내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며 꼭 가봐야 할 전통시장이다.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아티야

Mr. HAMAD BIN KHALIFA AL ATTIYAH

카타르 국왕 고문. 특히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과 함께 수크와키프 전통시장 개발에 기여하고 카타르 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 외에도 카타르 내 문화유적지와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알 와크라 시티

도하 남쪽에 위치한 알 와크라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GNLC) 에 가입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환경부, 그리고 알 와크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알 와크라는 이 타이틀을 얻은 최초의 걸프 도시로 지난 2021년 10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 (ICLC) 에서 발표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하이킹 코스 알 와크라



알 비드아 파크 AL BIDDA PARK

산책, 놀이, 엔터테인먼트, 바비큐장 및 낙타나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하 코르니쉬에 위치해 있다.



알 가라파 파크 AL-GHARRAFA PARK

에어컨을 갖춘 최초의 산책로가 있다. 50,000m² 부지에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공공사업부 ‘아슈갈 Ashghal’ 소속 엔지니어들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여 냉방과 에어컨 시설을 갖추도록 시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친환경 공원이다.



세계 보석 박람회

수백 개의 현지 및 글로벌 럭셔리 세계 보석 전문 브랜드들이 세계 보석 박람회에 참여하였다. _2020.2



카타르 쇼핑 페스티벌

도하를 지역내 주요 쇼핑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한 쇼핑 플랫폼



카타르 열기구축제가 도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아스파이어 공원 Aspire Park 상공에서 열리고 있다.



2021 카타르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럭셔리한 물에서의 쇼핑은 카타르 관광의 장점 중 하나다.



몰 오브 카타르 MALL OF QATAR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쇼핑몰이다. 50,000㎡에 달하는 쇼핑몰 부지는 축구장 50개를 합친 규모다.



빌라지오몰 VILLAGGIO MALL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몰 중의 하나.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델로 설계되었다.



알 하즘몰 AL-HAZM MALL

도하 시내에 위치한 가장 럭셔리한 몰 중 하나, 아랍과 이탈리아 문화를 콜라보하여 최신 유티opian 스타일로 설계되었다.



도하 페스티벌 시티몰 DOHA FESTIVAL CITY MALL

걸프지역 내 최대 규모의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중 하나. 60억 리알을 들여 지었으며,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마련되어 있다.



방돔 광장몰 PLACE VENDOME MALL

세계 최고 럭셔리 브랜드들과 5성급 호텔 로얄 메르디앙 Roay Merdien, 방돔 광장 Place Vendome, 최고급 레지던스, 레저 시설, 해변이 보이는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타와르몰 TAWAR MALL

카타르 내 가장 트렌디한 쇼핑 몰 중 하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외관과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곳이며, 고급 레스토랑과 레저 시설들이 즐비해 있다.



카타라 타워, 루사일 마리나 KATARA TOWERS, LUSAIL MARINA

루사일 시티 Lusail City 내 카타라 호스피탈리티 Katara Hospitality 社の 쌍둥이 타워로 가장 럭셔리한 숙박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타워에는 5성급 및 6성급 호텔을 갖추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위한 최고급 아파트 시설도 있다.



루사일 시티

최고급 사양으로 설계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



카타라 KATARA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어컨 시설을 갖춘 ‘카타라 컬처 빌리지’. 거리 곳곳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차가운 공기를 투입하는 냉방 시스템을 갖춰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오르는 한여름에도 25도를 유지한다.



더 펄 카타르 THE PEARL QATAR

도하 해변 북쪽에 인공 섬들을 지어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다. 펄 프로젝트는 수많은 주거 타워와 상업 시설, 첨단 인프라, 수려한 해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카낫 콰르티에 QANAT QUARTIER

베니스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으며, 운하와 양 옆으로 들어선 다채로운 색상의 빌딩과 브릿지가 매우 독특한 장관을 연출한다. 관광객들은 거리를 따라 산책하거나 수많은 상점과 카페를 즐길 수 있다.





바나나 아일랜드

유명한 휴양지 몰디브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인공 섬. 도하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가든, 레스토랑, 카페, 럭셔리한 호텔급 리조트를 갖추고 있다.





알 마하 AL-MAHA 아일랜드

카타르에서 꼭 방문해야 할 관광 명소 중 하나. 면적은 230,000㎡이며,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럭셔리 레스토랑을 포함해 온갖 시설들이 있다.





살와 SALWA 리조트

카타르 외곽에 위치한 매력적인 해변시티. 럭셔리 호텔 단지 내 워터 슬라이드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저트 펄스 워터 & 어드벤처 파크 Desert Falls Water & Adventure Park’가 있다.



2장

더 이상 세계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는 아랍인들

더 이상 세계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는 아랍인들

골치 아픈 갈등과 복잡한 분쟁을 충구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고자 카타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험한 지뢰밭에 대범하게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복잡한 갈등 관계를 유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중재하는 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카타르는 다르푸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치 단단한 돌처럼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분쟁의 실마리를 찾아내 협상의 여지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과 적대국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중 일부 국가는 카타르의 중재 덕분에 형제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거미줄과도 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분쟁이기 때문에 잘못 움직였다간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으나, 카타르는 신중한 외교 전략과 현명한 중재를 통해 아랍인의 강인함, 주도 면밀함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더는 아랍이 세상의 변방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카타르가 증명한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 카타르는 도하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간 수십 년 유혈분쟁 종식과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결정적인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카타르는 아랍인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전 세계에 전해주었다.

도하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아프간에서 모든 동맹국 부대와 미군의 철수를 명시한 것이다. 그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에서 미군과 동맹국에 대한 테러공격 중단을 약속했다. 이어 도하 협정에는 미국의 아프간 철수 이후 구성될 정부 형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대화를 명시했다.

아프간의 평화 유지와 관련한 카타르의 역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 3대 미대통령 행정부에 걸쳐 지속되었다.

워싱턴과 아프간에서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도하에 탈레반 정치 사무소 political bureau 를 개설한 직후 카타르는 탈레반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카타르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카타르의 통찰력과 혜안에 감탄했다. 카타르는 미국과 탈레반 간의 장거리 마라톤 협상을 수년간 중재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은 마침내 《도하 협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을 비로소 끝냈다.

카타르가 이룬 성과는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리적 혹은 인구통계학적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카타르의 인구는 290만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카타르가 보여준 성과는 비전과 결의, 진정성 있는 의지, 성공에 대한 부단한 노력 덕택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카타르는 중재의 성공은 분쟁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워싱턴과 탈레반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탈레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미군이 아프간 영토에 진입한 이후 20년 가까이 유혈 충돌을 치르고 나서야 협상 의지를 보였다.

카타르의 역할은 미국과 탈레반 간 유혈 사태와 살상 중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카타르는 지난 19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며 적대 관계를 이어온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전례 없는 대화를 추진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끈질기게 설득했다.

2020년 9월 미군 철수 이후 도하는 권력 투쟁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아프간 정부 세력과 탈레반의 협상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2021년 8월 중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직후 아프간 정부군이 항복하자 탈레반이 신속히 권력을 장악하여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을 떠났을 때 카타르는 공백으로 인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을 지켰다.

당시 아프간은 탈레반의 친정부 아프간인들과 외국인들을 향한 보복 가능성에 국제적인 우려가 확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카타르는 아프간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카타르 항공으로 철수시키느라 분주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이 절망과 공포와 혼돈으로 뒤덮인 상황 속에서 카타르의 조치는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탈레반 통치하에 닥칠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와중에,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군 군용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사망하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다. 곧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용을 베풀겠다고 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탈레반 정부가 여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카타르는 가족,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아프간인과 외국인 대피에 일조했으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카타르 내 임시 거처를 제공했다. 카타르가 제공한 임시 거처는 임시 텐트나 군용 막사가 아닌 호텔 수준의 주거 시설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2022년 FIFA 월드컵 대표팀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숙소였다. 카타르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특히 외교적인 사안과 영사 업무 지원에 있어 미국을 대신하여 ‘보호세력’을 자처했다.

아프간의 정치적인 혼동 앞에서, 미국, 영국, 독일, 스

페인 등 많은 국가들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들을 아프간 수도 카불 외곽으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철수한 외교관들을 맞이하고 국제사회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정부 간 연락 채널을 유지하기에 도하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었다.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에 분노를 표출하며 탈레반과의 협력을 거부한 국가들과는 달리, 카타르는 아프간 국민들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주안점을 두고 아프간 국민 원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도하에서 카불까지 수백 톤의 의약품과 식료품을 항공편으로 지원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이 항구가 없는 내륙 국가임을 감안하여 아프간 국민들이 국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카불 공항 재개를 위해 국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기술팀을 파견했다.

아프간 사태의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 카타르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 정부 대표들,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들이 도하에 모여 아프간 사태 당시 보여준 노력에 대하여 카타르 지도부와 정부 및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아프간의 안전과 안정, 특히 아프간 경제 붕괴와 그 결과로 야기될 빈곤과 실업, 절망을 틈타 국경을 넘어 들어온 급진주의와 테러 세력에게 자칫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카타르의 충고와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논의했다.

이 기간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아프간 문제를 다루는 국제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셰이크 타미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 걸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카타르가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은 2021년 8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들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외교관 및 위협에 처한 아프간 시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카타르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작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이며, 매일 수천 명의 대피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의 초기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 도움을 제안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선 나라는 카타르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카타르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를 ‘非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했다. 카타르에게 전례 없는 군사적, 기술적인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프간 사태를 현명하게 대처한 카타르의 외교력에 전 세계는 경의를 표했다. 워싱턴은 셰이크 빈 압둘 라흐만 알 싸니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에게 공공복무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2021년 유엔은 Dr. 무틀라크 빈 마지드 알 카흐타니 카타르 대테러 및 분쟁 해결 중재 담당 외교장관 특사에게 최고 협상가상을 수여했다.



2021년 1월, 걸프 정상 국가로서는 최초로 카타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났다. 같은 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의 지역적, 국제적 리더십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카타르를 미국의 非 NATO 주요 동맹국으로 선언했다.



결정적인 순간

카타르의 중재로 2020년 2월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세력이 수년 간 지속된 유혈 분쟁을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마지막 미군 장병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장면

2020년 8월 31일 미 국방부 펜타곤이 게재한 사진



카타르항공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아프간 시민들과 외국인 수천 명이 카타르항공을 이용하여 도하에 도착하는 모습





인도주의적 지원 우선

카타르는 카불을 출발해 도하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입국과 임시 수용 조치를 신속히 처리했다(로이터 통신 제공)





아프간난민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룰루아 빈트 라쉬드 알 카티르 Lolwah bint Rashid Al-Khater 카타르 외교부 장관의 수행으로 도하에 마련한 아프간 난민 임시 거주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꿈꾸는 소녀들 Dreamers

‘꿈꾸는 소녀들 Dreamers’로 알려진 아프간 로봇팀 소녀들로 구성된 그룹이 카불을 탈출한 후, 카타르 재단 Qatar Foundation에서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카타르 개발 기금과 공동으로 재원 마련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소녀들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한 아프간 가족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후 도하에 마련된 최신 거주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도하 빌라 단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 동안 참가 대표팀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 아프간인들과 외국인들이 머물도록 사용되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카타르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카타르와 미국 양 측 국방 및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카타르가 보여준 헌신과 기여를 치하하도록 했다. 블링컨은 "많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시했으나, 카타르만큼 실질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도하_2021. 9

해피엔딩의 주인공

아프간 사태 이전에도, 카타르는 그동안 수많은 분쟁과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평화 정착과 유혈 상태 중단, 인질 석방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카타르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여러 차례 중단시킨 휴전 협정 체결이다. 당시 카타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재건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카타르의 중재로 2021년 5월 케냐와 소말리아 간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로부터 수 년 전인 2008년에는 레바논 파벌 간의 화해를 위한 도하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0년에는 지부티와 에리트레아 간의 협정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2016년 지부티 정치포로들이 에리트레아에서 석방되도록 협상을 중재했다. 같은 해 수단과 에리트레아 간 분쟁 해결을 중재했으며, 시리아 인질 석방에도 역할을 담당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5년에는, 리비아 투아레그족 Touareg 과 투부족 Toubou 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 《도하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일조했다. 그 외에도 카타르가 성공적으로 중재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2022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카타르는 차드의 집권 군사 평의회와 무장반군 세력 간 평화 협상을 끌어냈다.

카타르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어떤 일이든 직접 겪기 전까지 진가를 알 수 없다. 카타르가 비전 2030을 바탕으로 펼친 활동들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외교력을 적극 활용하여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카타르의 역량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쉽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카타르는 단순히 폭력을 중단하거나 카메라 렌즈와 언론 앞에서 화해와 평화 협정 체결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중재 역할을 마치지 않고 아무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협정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폭력의 뿌리를 뽑고, 무지, 빈곤, 절망, 실업에서 야기되는 급진주의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카타르의 부단한 노력들은 실제로 많은 분쟁 지역에서 결실을 보았다. 실제로 카타르가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격렬한 전투와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에 기여한 결과, 2011년 《다르푸르 평화를 위한 도하 평화협정 Doha Document for Peace in Darfur》 문서 체결을 끌어냈다. 또한 다르푸르 지역 5개 주에 10개의 시범 마을을 지어 피난민들의 자발적인 귀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고 경제 지원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전 인류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선도자인 아랍국가로서, 2017년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유엔 인도적 지원국’ 순위에서 아랍국가로서는 1위를, 전 세계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카타르는 또 다른 획기적인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 사회를 놀라게 했다. 바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있는 1,000만 명의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것이다. 《아이를 가르쳐주세요 Teach a Child》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의 부인이자, 교육과 학문, 사회발전을 위한 카타르재단 및 교육 최우선 재단 Education Above All Foundation의 최고 경영자인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가 후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헛된 꿈이라 치부했고, 실현 가능성 없는 비 현실적인 야망이라며 우려했지만, 카타르는 이니셔티브를 실제로 추진했고, 꿈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 빈곤, 인재 및 천재 등의 불가피한 이유들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전 세계가 위기, 환경, 의료 보건 등의 재난에 직면했을 때, 카타르는 인종·언어·종교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호 및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위낙 방대한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카타르의 지원을 받았기에 원조 규모와 수혜자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 카타르는 소도서(小島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이 기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외교부 산하 카타르 개발 기금 Qatar Fund for Development을 통해 90여 개 이상 국가에 의료 지원과 백신을 제공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노력에 동참했다. 2020년에는 세계보건기구(WTO)와 ‘세계백신 면역연합 Gavi, the Vaccine Alliance’을 지원하여 전염병 퇴치에 앞장섰다.

카타르는 이러한 역할과 책무를 통해, 아랍인들이 더는 세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아랍인들도 결의와 의지, 현명한 리더십을 갖춘다면, 인류를 위해 숭선수범하는 선구자가 되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도하 레바논 화해 협정

카타르는 2008년 5월, 지난 18개월 간의 레바논 내 유혈 사태와 정치 위기를 종식시키는 《도하 레바논 화해 협정》 체결을 지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하마드 주거지역

가자지구 내 점령 만행에 대항하여 거주 위기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형제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카타르가 제공한 시설



차드 평화 협정

카타르가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중재했던 사례. 집권 군사 평의회와 무장 반군 세력 간 차드 평화를 위한 도하 협정 체결을 중재하는 모습_2022. 8



다르푸르 평화를 위한 도하 협정

수년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카르툼 정부와 다르푸르 반군 간 자원과 권력 배분의 기반을 마련했다. _2011. 7



기후 위험 공동 대처를 위한 지원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 2019년 유엔 기후 정상 회담에서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소도서(小島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90개국 이상에 의료 지원 제공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 카타르 개발 기금Qatar Fund for Development 을 통해 백신 및 의료 지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

카타르항공이 카불로 보낼 인도주의 구호품을 싣고 있다. 비정부 기관인 카타르 자선 단체 ‘Qatar Charity’ 를 통해 전 세계 2,9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카타르 적신월사

1978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카타르 내 최초의 자발적 자선 단체다. 국제 인도주의적 운동에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멤버로 활동 중이다.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니셔티브

카타르는 전 세계 분쟁 지역과 갈등 지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일부 사람들이 현실 가능성이 없고 비논리적인 목표라며 비관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교육 최우선 재단 Education Above All Foundation’ 최고 경영자인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카타르 국왕모는 재단에서 추진한 《아이를 가르쳐주세요 Teach a Child》 프로그램이 전 세계 1,000만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셰이카 모자 국왕모는 2012년 전 세계 6,0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면서 감동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 아이들은 분쟁으로부터 피난 왔거나, 빈곤 또는 자연재해를 피해 대피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셰이카 모

자 국왕모는 1,00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 교육이라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과감히 제시했다.

6년 후인 2018년 4월 셰이카 모자 국왕모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참석 하에 열린 뉴욕 공공 도서관 축하 행사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던 목표를 달성하여 그동안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전 세계 1,000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되었음을 기쁘게 발표합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유엔 총회는 9월 9일을 《공격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교육의 날》로 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가 전 세계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촉구한 결과였다.



1,000만 명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이니셔티브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가 분쟁과 재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1,000만 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완수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선언하고 있다. 카타르는 분쟁의 경중, 빈곤의 정도, 재해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_ 2018.4

3장

스마트파워

스마트파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전 미 국방부 차관보였던 조셉 나이 Joseph S. Nye 는 소프트파워 Soft Power (연성권력)에 대하여 "설득의 수단으로 강요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느 국가든 소프트파워의 근원은 문화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지리적으로 면적이 적고 인구수도 적은 카타르는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력을 보호하며, 그동안 이룬 성과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타르는 소프트파워 개념에 ‘스마트 Smart’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재 정의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친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카타르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면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비전이 확실한 현자(賢者)가 선한 의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주도한 결과 카타르는 모든 국가의 존경을 받았고, 현명함과 대범함의 롤모델이 되었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은 지리적으로 면적이 적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방대한 국가도 매년 수십억 달러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소프트파워가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을 움직이고 상호 이해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이라는 곳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회의 땅, 정의와 평등의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소프트파워다. KFC나 맥도널드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역시 미국 문화에 대한 취향과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군대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 Hard Power 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항상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결합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힘의 결합은 후에 ‘스마트파워’로 정의되었다.

역사의 암흑기에 수백만 명의 아랍인들은 더는 자국의 언론을 믿지 않았고, 대부분 언론은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여 여론을 호지부지 덮어왔다. 그로 인해 아랍인들은 자국의 언론을 통해 들은 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행성의 다른 나라에 사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카타르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은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알 자지라 뉴스 채널 Al Jazeera News Channel 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였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아랍 언론의 새 시대를 개척하려는 야심으로 1996년 출범한 알 자지라 방송은 곧, 역 내 간판 미디어가 되어 소프트파워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카타르가 당시 미디어에서 유행하던 토크쇼나 오디션 프로그램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쉬운 길 대신 진지한 뉴스 채널 출범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결국 알 자지라 방송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이 되었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민중의 편에 섰던 알 자지라 방송은 거리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얻었다.

알 자지라 방송 전파를 통해 아랍 국가 국민들은 마침내 진실, 속보, 전문성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알 자지라

방송은 카타르의 많은 성과 중에서도 독보적이었고, 카타르와 알 자지라 방송은 둘 중 하나만 떠올려도 곧바로 연상될 정도로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당시 수십 년간 틀에 박히고 무미건조한 현지 지역 뉴스 보도로 인해 진실을 갈망하던 아랍 국가들은 진정한 뉴스를 BBC나 몬테카를로 같은 외신 채널에서 찾는 데에 익숙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보적인 알 자지라 방송의 성공으로 카타르의 소프트파워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알 자지라 채널은 거짓 정보의 바다에서 구해줄 구명조끼이자 허위 폭탄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전 세계인들은 알 자지라 방송 뉴스의 신뢰성, 정보의 정확성, 저널리즘 조직의 전문성을 신뢰하게 되었다.

알 자지라 채널은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침공을 탁월한 시각으로 전달하여 중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각을 드러냈다. 냉철함과 전문성을 갖춘 취재와 토론 및 독점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와 권위 있는 국제 언론 매체와 방송 채널의 장악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렇게 알 자지라 방송은 세계적인 유명 뉴스 채널 중 하나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승승장구하던 알 자지라 방송은 2006년 인기 있는 다양한 채널을 보유한 ‘알 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 Al Jazeera Media Network’로 확장되었다. 한편, 카타르 공식 언론사인 카타르 미디어 코퍼레이션 Qatar Media Corporation은 ‘카타르 텔레비전 Qatar Television’, ‘알 카스 스포츠 채널 Al kass Sports Channels’ 등의 TV 채널과, ‘카타르 라디오 Qatar Radio’, ‘꾸란 라디오 Qur’an Radio’, ‘사우트 알 칼리지 Sout Al Khaleej’, 불어 방송인 ‘프렌치 스피킹 오릭스 FMFrench-speaking Oryx FM’, 영어 방송인 ‘잉글리시 QBS English QBS’, ‘우르두 방송 Urdu Radio’ 등의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 다채로운 채널과 함께 2009년 출범했다. 《혁신을 추구하되 우리의 가치를 고수하자》라는 슬로건과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미디어 지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디어의 혁신과 발전

에 편승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문화적인 가치와 정체성, 사회의 문화를 보존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앞장섰다.

카타르의 성공은 알 자지라 채널에 만족하지 않고 곧이어 ‘비인 beIN 미디어 그룹’을 출범했다. 비인 beIN 미디어 그룹은 5대륙 43개국에서 7개 언어로 60개의 채널을 방송하는 TV 제작 및 방송 판권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알 자지라와 함께 비인 beIN 그룹은 특히 스포츠 채널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등 인기 있는 주요 유럽 리그와 글로벌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 중계하여 카타르 소프트파워의 또 다른 핵심으로 부상했다. 비인 beIN 그룹은 세계적인 스타 제이슨 스타뎀이 주연을 맡은 영화 제작을 통해 할리우드에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다. 일부 장면은 도하 코르니쉬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카타르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카타르는 세계 주요 미디어 네트워크 유치를 위해 루사일 Lusail 시티 내 미디어 시티 Media City 설립 계획을 밝혔다. 2021년 2월에는 ‘유로 뉴스 네트워크 Euro News Network’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2 FIFA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의 역량과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알 라이얀 미디어 앤 마케팅社가 소유한 ‘알 라이얀 위성 채널 Al Rayyan Satellite Channel’은 역사, 독창성, 연대감을 유지하고 발전과 현대화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와 인류의 경주에 발맞추며 사회적인 가치와 정체성에 모순되지 않도록 카타르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셰이크 압둘라흐만 빈 하마드 빈 자심 알 싸니

H.E. Sheikh Abdulrahman bin Hamad bin Jassim bin Hamad Al Thani

문화부 장관

셰이크 압둘라흐만 빈 하마드 알 싸니 장관은 ‘카타르 미디어 코퍼레이션 Qatar Media Corporation’ 회장 시절 언론의 질적 발전을 실현한 인물이다. 《혁신을 추구하되 우리의 가치를 고수하자》라는 슬로건과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미디어 지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디어의 혁신과 발전에 편승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문화적인 가치와 정체성, 사회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앞장섰다.



알 라이얀 Al Rayyan 위성 채널



카타르 미디어 코퍼레이션



알 카스Alkass 스포츠 채널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아버지 국왕과 셰िका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와 함께 2016년 11월 알 자지라 채널 출범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디스커버 알 자지라 전시회 Discover Al Jazeera Exhibition>를 방문하고 있다.

1996년 도하에서 알 자지라 네트워크 출범

세계적인 주요 뉴스 채널들을 제치고 아랍 지역 내 가장 중요한 미디어 채널이 되었다.



알 자지라

전 세계 미디어의 주요 소스.



셰이크 하마드 빈 싸미르 알 싸니

SHEIKH HAMAD BIN THAMER AL THANI

셰이크 하마드 빈 싸미르 알 싸니 알 자지라 채널 이사회 이사장이 알 자지라 출범 25주년 기념식에서 전문성과 신뢰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언론의 주요 출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의 플랫폼, 문화의 등대

카타르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스포츠 등 국제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대화의 플랫폼이자 목적지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곳곳에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유치를 통해 문화의 등대가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카타르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카타르는 국가 정상들과 정부 수반들, 영향력 있는 명망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지도자들과 학자들, 사상가들과 정책 입안자들과 결정권자들이 찾아오는 권위 있는 평판을 가진 국제회의 유치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3월 제 20회 <도하 포럼 Doha Forum>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에서는 가장 핫하고 민감한 국제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균형 변화와 러시아 가스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유럽을 위해 전 세계 천연가스 주요 생산지로서의 카타르의 역할이 주요 안건이었다.

셰이크 타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 전쟁 초기에 도하로 특사를 파견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세 차례 유선 통화를 함으로써 도하는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등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3월 도하 포럼에서 원격으로 연설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카타르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프로프 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등 서툰 외교를 시도했다. 이 외교를 통해 카타르는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타협의 정신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의 중재 능력과 냉철한 외교력의 성공으로 국제사회가 카타르의 역할을 더욱 신뢰하게 되면서 소프트 파

워는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국제 세력들에게 중요하고 믿을 만한 대화의 플랫폼이 되었다.

한편, 2015년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 체결한 핵협정이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2022년 6월 말 카타르는 이란-미국 간 간접적인 회담을 중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드러난 행사는 2022년 6월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과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중동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제 1회 카타르 경제 포럼 개최였다.

반면에 카타르 재단 산하의 <와이즈 WISE>교육 혁신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는 국내·외에서 카타르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카타르의 소프트파워는 미디어와 외교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국제기구 등에서 고위직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 2017년 10월, 카타르 후보인 하마드 빈 압둘아지즈 알 카와리 Dr. Hamad bin Abdulaziz Al Kawari 박사는 유엔 산하 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유네스코(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C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올랐다.

중요한 것은 알 카와리 박사는 강력한 후보들에 맞서 네 차례의 치열한 마라톤에서 선두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는 카타르의 위상과 외교와 문화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후보에 대한 국제 시험 무대였다.

그 당시 카타르는 걸프 위기로 인한 긴장감만 없었다면 세계적인 유엔 기구에서 중책을 맡았을지도 모를 역사적인 승리의 문턱에 와 있었다. 비록 카타르 후보는 프랑스

후보였던 오드레 아줄레 Audrey Azoulay 에게 불과 2표 차로 패했지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부심의 본보기가 되었다. 카타르 후보였던 하마드 빈 압둘아지즈 알 카와리 박사가 여러 차례 투표에서 선두를 유지하여 유네스코의 첫 아랍 사무총장이 될 뻔했다는 것은 카타르 소프트파워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카타르 후보가 전 세계 교육, 과학, 문화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책임 있는 단체를 이끌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다.

카타르 후보가 유네스코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오른 것은 카타르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그 후에도 카타르는 국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 그 중 두드러진 성과는 카타르 국립도서관 Qatar National Library 의 재개관이었다. 카타르 국립도서관은 1962년 12월 29일 아랍 걸프지역에서 설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이후 2018년 4월 에듀케이션 시티 Education City 에 새로 건물을 지어 오픈할 당시 문학적인 유산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헌신과 존경할 만한 행보로 높이 평가받은 알 카와리 Dr. Al Kawari 국무 장관이 도서관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오픈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도하 해변 상공을 유영하는 우주선을 연상케 하며 조화롭게 얹혀 있는 사막의 장미 모양의 외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카타르는 특히 1972년 시작된 이 지역에서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국제도서전인 <도하 국제도서전>을 수십 년간 개최해 오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이성과 감성의 자양분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 또한 카타르 국내 박물관들을 관리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카타르 박물관청은 2008년 세계적으로 저명한 I.M. Pei leoh Ming Pei 건축가의 디자인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슬람 예술 박물관의 개관을 이끌었다. 이 박물관은 2010년 개관한 아랍 현대 미술관 ‘마트하프 Mathaf’ 와 함께 이 지역에서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카타르가 아랍과 이슬람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전하면서 타 문화에 문호를 개방하고 외부 세상을 탐구하는 매우 스마트한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카타라 걸쳐 빌리지’가 좋은 예다. 가장 중요한 문화 관광지 중 하나로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 빌리지 안에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를 목격할 수 있다. 빌리지 해변에서는 조상들의 무역 항로와 값비싼 진주 채취와 관련한 고대 역사를 들려주는 전통 범선(다우) 축제가 열린다. 카타라 걸쳐 빌리지는 카타르 내 문화 활동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2010년 개장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박물관이 카타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들 간 소통을 위해 미국, 중국, 독일, 튀르키예 등의 국가들과 <문화의 해> 콜라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7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100명 이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오케스트라는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카타르 <평화의 뮤직> 이라는 이름으로 공연한 바 있다.

음악에서 유산으로 그리고 이어진 영화 산업에서는, 2010년 카타르와 전 세계 영화 유망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설립한 ‘도하 필름 기관 Doha Film Institute’ 이 있다. <꾸므라 Qumra >라는 이름의 영화제를 통해 프로젝트 기금을 마련하며 시나리오 집필에서 상영까지 영화 제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카타르 국립극장은 카타르가 정체성과 유산을 보전하면서 개방과 현대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카타르 올림픽 & 스포츠 박물관 1-2-3’이 칼리파 국제 스타디움 인근에 개관했다. 스포츠와 올림픽 게임이라는 유산을 전 세계에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처럼 카타르는 학문, 문화, 예술, 스포츠,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하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다리가 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선진 문명 국가로서의 위상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을 강화하게 해 준 <도하 포럼>

매년 국가 정상들, 정부 수반들과 사상가들이 모여 국제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셰이크 타미르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 <2022 도하 포럼>에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로 ‘아프간 로보틱스 소녀들 Afghan Girls for Robotics’ 팀의 리더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루으야 마흐부브 Roya Mahboob 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 3월 <도하 포럼>에서 화상으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하여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카타르 경제 포럼

2022년 6월 <중동의 다보스>로도 알려진 <카타르 경제 포럼>이 각국 정상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와이즈 WISE, 교육의 미래건설을 위한 국제 플랫폼

카타르 재단 산하의 교육 혁신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와이즈 WISE>는 전 세계 교육의 미래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이다.



유엔 기후변화회의_2012 도하



도하 국제도서전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국제도서전 중 하나. 1972년 첫 도서전이 개최되었으며, ‘카타르 도서 하우스’에서 관리하고 있다. 격년으로 개최되었다가 2002년 이후로는 문화부가 담당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카타르 국립 컨벤션 센터

중동지역 내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컨벤션 센터



셰이카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알 싸니

SHEIKHA AL MAYASSA BINT HAMAD AL THANI

카타르 박물관 이사회 이사장. 문화의 등대로서 카타르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Artreview紙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되었으며, 포브스 紙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여성' 명단에 도 올라가 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

사막의 장미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슬람 예술박물관

전 세계에서 베스트 이슬람 예술품들을 모아둔 곳 중 하나로 유명하다.



아랍 현대미술관



도하 소방서 내 카라지 갤러리

카타르에는 다양한 문화화 다양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려는 카타르의 관심을 반영하는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



카타르 박물관 갤러리 내 전시홀



알 쿠르 AL KHOR 뮤지엄

도하 북쪽 57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2층으로 지어졌다. 지상은 인류학적 문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2층은 이 지역 내 고생물학적인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카타라 컬처 빌리지

극장, 문학, 예술, 뮤직, 회의, 갤러리를 통해 중동지역 전체를 밝혀주는 글로벌 문화 등대와 같은 곳이다.



카타르 국립도서관

아랍 걸프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공립 도서관으로 1962년 12월 29일 개관했다. 2018년 에듀케이션 시티에 신건물로 재 개장했다.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카타르 오케스트라가 평화의 음악 Peace Music 을 연주하고 있다.



카타르 국립극장

카타르의 중요한 문화 건축물이자 유산 보전과 동시에 현대화 발전을 향한 카타르의 여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카타르 올림픽 & 스포츠 박물관 1-2-3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최첨단 스포츠 박물관 중 하나이며 19,000㎡의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방문객들에게 스포츠와 올림픽 게임의 역사와 유산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나세르 알 클라이피

MR. NASSER AL-KHELAIFI

BeIN Sports Network 회장이자 파리 생제르망 구단주. 2024년까지 유럽 축구 협회 집행위원회 멤버로 연임되었다.



BeIN SPORTS NETWORK

BeIN Sports 네트워크 스튜디오 중 하나. 전 세계 주요 경기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시간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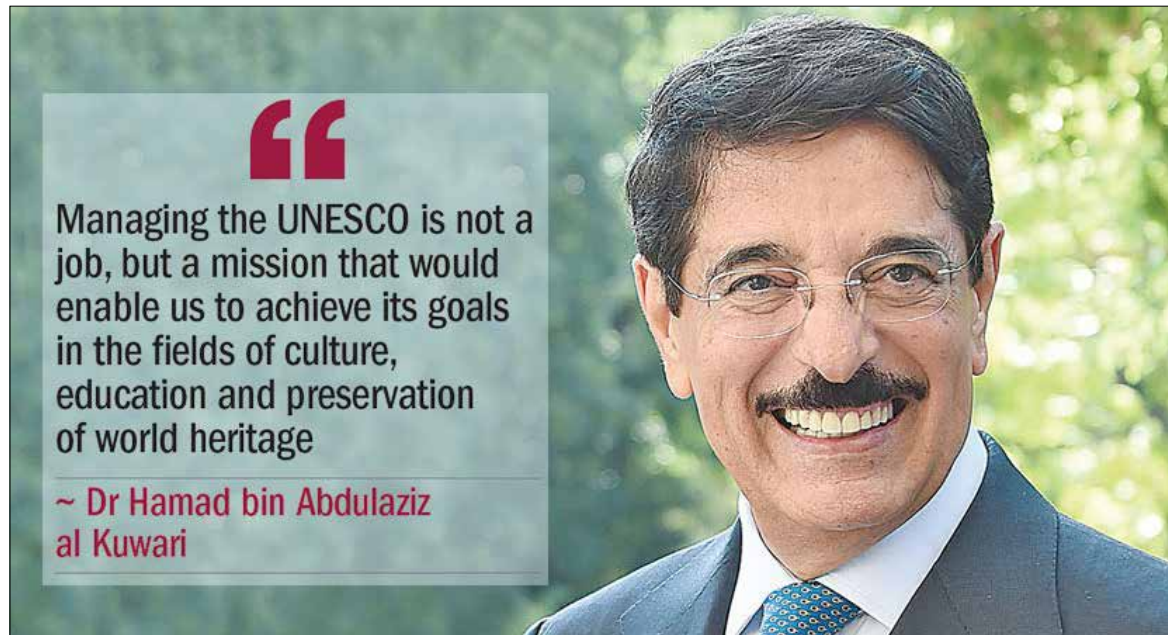


글로벌 영화 촬영지가 된 카타르

영화 촬영지 제공은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영화 <그린 라인 Green Line> 도하 영화제작사 제작



카타르 유네스코 사무총장 후보인 하마드 빈 압둘아지즈 알 카와리 박사. 유엔 기구 사무총장직에 도전하여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불과 2표라는 근소한 차이는 하마드 박사를 향한 전 세계의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주었다.



파리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 본부.

4장

정체성이라는 요새

정체성이라는 요새

만일 당신이 카타르에 도착하여 의회, 기관, 부처 건물들, 고급 쇼핑몰에서 카타르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겸손함, 관대함, 넘치는 환대가 눈길을 끌 것이다. 겸손함은 자신감이 넘치는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국가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카타르인들은 언제나 가치와 전통 그리고 종교와 신념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카타르 국민들은 전 세계와 다문화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독창적인 카타르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쉽지 않은 균형을 실현해 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이 하얀 옷과 구트라(머리에 쓰는 스카프)와 이깔(스카프를 고정하는 동그란 띠)로 이루어진 전통의상을 여전히 즐겨 착용하고 관대함과 환대를 느낄 수 있는 마즐리스 Majlis (주로 아랍 남성들이 환담을 나누는 곳) 전통을 유지하며 국가기념일이나 일반 축제에서 카타르의 유명한 민속 춤인 아르다를 즐기는 모습 등이 그 증거들이다.

그들은 오래전 염소 털 또는 가축의 털로 지은 텐트나 가옥에서 거주하며 사막의 이동 수단인 낙타 또는 기타 다양한 탈 것을 이용하여 사막을 돌아다니던 유목민 시절부터 자신들의 정체성과 유산을 올바르게 유지해 오고 있다. 바로 아버지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싸니의 뒤를 이은 두 번째 통치자이자 실질적으로 카타르를 건국한 셰이크 자심 빈 무함마드 빈 싸니(1878-1913)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유산과 정체성 보전에 대한 지대한 노력은 현대화와 고층건물로 대변되는 현대 국가를 세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 시대에도 지속되었으며, 뒤를 이어 패기와 담대한 야망을 갖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현 국왕의 리더십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카타르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들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보호하는 뿌리 깊은 관습과 전통을 지키고자 하며 독창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생활 방식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로운 건물 외관과 건축학적 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명한 수크 와키프 Souq Waqif 전통 시장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드 악기와 다양한 향료에서 나오는 향이 어우러져 진한 헤리티지의 향기를 풍기지만, 바로

옆 도하 시내인 무샤이립 Msheireb 시티는 고급 주거단지 와 세계적인 명품 상점과 5성급 럭셔리 호텔들이 즐비하다. 전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도심 개발 프로젝트로 조성된 곳으로 최첨단 AI 기술, 조명과 냉방의 혁신적인 접근, 환경 보호를 접목했다.

전 세계와 교류하고 국경 내 다양한 국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어떠한 형태의 작은 문화적인 침투에도 효과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해 올 수 있었다. 비록 인구의 다수가 국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카타르는 전 세계에 문화를 개방하고 모두와 함께 공존하는 동시에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강인함, 아랍과 이슬람의 정체성을 잘 보존해 왔다.

어떠한 현대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전통 중 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카타르 국민들이 거의 매일 고수하고 있는 마즐리스 Majlis 전통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카타르인들의 주택은 손님을 위한 마즐리스를 갖추고 있다. 마즐리스는 자신들의 집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지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곳이다. 아주 오래 전에 살던 조상 때 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마즐리스는 주로 거주하는 집과 가까운 곳에 지어진 방이거나 혹은 독립된 건물일 수도 있다. 아랍의 전통 악기 우드 oud 의 향기가 흐르는 이곳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은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즐긴다.

마즐리스에서는 술레이마니 티 Suleimani tea (홍차) 또는 우유를 넣고 여러 번 끓인 카락 티 Karak tea 를 마실 수 있다. 당연히 아랍 커피도 준비되어 있다. 아랍 커피는 작은 잔으로 제공되며 손님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로 잔을 권 손을 흔들기 전까지는 몇 번이나 계속 따라준다.

일반적으로 카타르뿐만 아니라 걸프지역에서 마즐리스는 학교와도 같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화법(話法)과 좋은 매너를 배우게 된다. 어떤 마즐리스는 문화 살롱의 역할도 하여 시와 문학, 수다, 온갖 인생 스토리들로 가득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무역, 비즈니스와 같은 현안과 기타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정체성과 개성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즐겨 입는 카타르인들의 모습





MAJLIS

어린아이들은 이곳에서 화법(話法)과 좋은 매너를 배우기도 한다. 이곳은 언제나 시와 문학, 인생사로 가득하며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카타르 전통 춤 아르다 ARDA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전통 유산



도하 시내 무샤이립 Msheireb



수크 와키프 Souq Waqif

수크 와키프 Souq Waqif 에 들어선 고대 건축양식의 상점들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설계된 도하 시내 무샤이립 Msheireb 인근에 있다.

확고한 원칙

일찍이 카타르는 능동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선수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외교, 스포츠, 미디어, 문화 등 중요한 분야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카타르의 존재감과 뛰어난 성과는 점점 늘었지만, 카타르는 여전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체성과 유산을 잘 보전해오고 있다.

카타르는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품을 수 있었다. 우리는 카타르 내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면서도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혹은 뿌리를 흔들려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인들은 열성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모스크에 가고 공립 학교와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면서 국제 학교와 대학에 영어, 프랑스어, 인도어, 튀르키예어 등 기타 다른 커뮤니티의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카타르 국민들은 사냥과 낚시를 즐겨하던 전통도 저버리지 않았다. 사냥은 과거 식량과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공급원이었다. 현재는 취미이자 스포츠가 되었으며 수익성 좋은 무역이면서 문화적인 뿌리를 유지해 주고 매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매사냥, 낚시, 심해에서 값비싼 진주 다이빙 등은 카타르의 고대 역사의 일부분이었다.

카타르 사막은 카타르항공이 여객기와 화물기에 로고로 사용하여 더욱 유명해진 올릭스 가젤이 풍부한 곳이었

다. 또한 카타르 사막에는 ‘하바라 Habara bustard (방울깃 작은느시라고 하며 북아프리카에 주로 서식-웁긴이)’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와 야생 토끼 Cape hares 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카타르인들은 사냥에서 돌아오면 잡은 것들을 이웃이나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는 했다.

매는 카타르와 걸프지역 대중문화에 특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사냥에 탁월한 능력과 비행할 때의 스피드, 선명한 시력과 먹잇감을 낚아채는 힘은 조류와 야생 토끼로부터 식량을 공급할 때 유용한 기본 수단이었다. 현재 매의 가격은 수백 또는 수천 리알까지 오르고 있으며, 인도 매 Indian falcon 와 세이커 매 Saker falcon 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카타르와 걸프지역에서는 현지 매사냥 대회와 국제 토너먼트가 열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회로는 매사냥대회를 위한 <마르미 페스티벌Marmi Festival>과 <카타르 국제 매와 사냥 페스티벌Qatar International Falcons and Hunting Festival>이 있다.

걸프인들에게는 사냥에 특별한 열정이 있다. 그들은 조류와 야생 토끼 사냥을 즐기러 길면 수 개월 씩 여행을 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 사냥을 금지하는 환경 단체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시대 이전 카타르와 걸프인들은 목조 범선(다우)을 타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을 따라 이동했다. 목조 범선은 잔지바르에 여행이나 사냥 또는 무역을 위해 이동하는 카타르와 걸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 이 전통을 생생히 되살리기 위해 카타르는 전통 목조 범선(다우) 축제를 개최한다. 또 하나의 주요 행사는 카타라 문화 빌리지가 도하 해변에서 개최하는 <센야르 페스티벌 Senyar Festival>의 하이라이트인 진주 다이빙이다.

카타르는 과거 낚시와 진주 무역을 하던 시기에 만남의 장소이자 전통 시장으로 시작했던 수크 와키프를 리모델링하여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유산이 담긴 카타르의 역사와 중요한 전통 허브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했다.

2011년 카타르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입하고 ‘알 주바라 요새 Al Zubarah Fort’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렸다. 이 역사적인 요새는 카타르 세 번째 군주인 셰이크 압둘라 빈 자심 알 싸니 통치 기간인 1938년에 지은 군사 요새로서 이곳에 있는 성들과 요새들은 카타르인들이 1971년 독립할 때까지 영토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투쟁과 저항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카타르 국민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그룹을 지어 보이스카우트 야영 체험처럼 사막에서 캠핑을 하며 상쾌한 날씨를 즐기거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일광욕과 바비큐를 즐겼던 사막의 유산을 간직해오고 있다. 과거에 익숙했던 염소 가족으로 만든 텐트에서의 캠핑은 곧 현대적으로 발전하여 와이파인과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최신 카라반으로 바뀌었다.

말과 낙타에 의존하던 시절은 사라졌지만 카타르는 국가의 개성이자 정체성을 상징했던 특징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국내 및 국제 대회를 유치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알 샤잡 Al Shaqab’ 센터는 아라비안 말들을 수입하고 사육하는 곳으로 세계 대회에 전시할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선정한다. 카타르에서 태어난 국제 챔피언 경주마들을 생산하는 유일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마르완 알샤잡 Marwan Al Shaqab’과 ‘하리리 알 샤잡 Hariry Al Shaqab’이 특히 유명하다.

현대화에 편승하기 위해 낙타 경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아이들을 낙타 등에 태웠던 과거 경주 방식 대신에 로봇을 태우는 등 일부 규정과 법률을 더 나은 쪽으로 개정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무선기기를 통해 낙타와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어 낙타가 경주 트랙을 달리는 동안 조수가 운전하는 사륜구동을 타고 낙타의 진로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무선 기기를 통해 낙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소리로 독려하기도 하고 우승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걸프지역의 삶에 흔적을 남긴 현대의 모습이다.

알라의 축복에 감사하며 카타르인들은 유산을 방치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개방과 현대화는 과거와의 단절과 정체성 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폐쇄된 마음이나 급진주의 또는 발전과 혁신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카타르인들은 깨지기 쉬운 돌처럼 화석화되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유순하여 악용에 취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균형을 유지했고 모든 사안에서 중도를 택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통 유지라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발전과 현대화 속에서 세련되고 문명화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알 주바라 요새 AL-ZUBARAH FORT

카타르 세 번째 군주였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심 알 싸니의 감독으로 1938년 지어진 역사적인 군사 요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도하 북서부 105km 떨어져 있다. 진주 채취와 무역으로 알려진 도시의 흔적이 내려다 보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과거 진주를 찾아 잠수하던 세계로 되돌려주는 유물의 파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합 모스크

카타르 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의 건축 아이콘



알 파나르 AL-FANAR

수크 와키프 전통 시장에서 가까운 카타르 이슬람 문화 센터



카타르 윈터 캠핑에서는 양모와 울로 만든 전통 텐트 안에서 수려한 사막의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다.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최신 카라반을 이용한 캠핑



알 와크라 AL WAKRA 올드 마켓

도하에서 15km 떨어진 독특한 관광지. 걸프 해안이 보이는 인상적인 뷰를 자랑하며 올드 전통 건축물이 있어 과거 카타르가 유명했던 낚시와 진주 채취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점, 레스토랑과 좁은 골목들이 많다.





카타라 전통 목조 범선(다우) 축제

카타르인들은 여행이나 무역, 낚시에 목조 범선을 주로 사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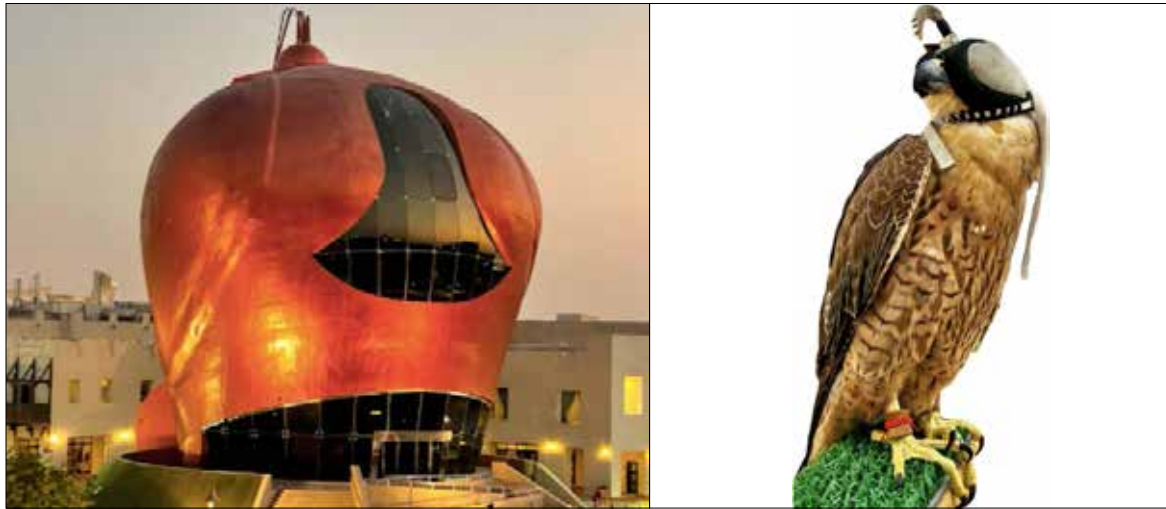
센야르 SENYAR 페스티벌

매년 카타르의 해상 전통을 되살리는 행사. 사진 속 다이버가 진주조개를 수집하고 있다. 과거 카타르는 진주 무역으로 유명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도하 하늘 아래 여행과 낚시 전용 전통 목조 범선들과 고층 빌딩들이 전통과 현대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QATARI SOCIETY OF AL GANNAS

사냥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건물은 ‘매 부르카falcon burqa’ 모양을 본 따 설계되었다. 카타라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독특한 취미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마르미 MARMI 페스티벌

매사냥을 통해 카타르의 오래된 재생 가능한 유산을 기념하고 있다.



알 칼라일 AL-QALAYEL 페스티벌

과거 카타르 사냥꾼들의 기술을 보여주는 전통 사냥 문화 축제. 카타라 걸쳐 빌리지에서 조직하고 있다.



낙타 경주

카타르의 문화 유산인 낙타 경주가 개발에 발맞추어 현대 기술로 재현되고 있다.



경마

<Sheikh Tamim Sword> 경마 대회가 알 라이얀Al Rayyan 지역 승마 클럽 잔디에서 열리고 있다.



하리리 알 샤캅 HARIRI AL SHAQAB

카타르 재단 소속 말라크 알 샤캅Malak Al Shaqab. 2019년 파리에서 열린 <월드 아라비안 호스 챔피언십>에서 플래티넘 어워드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



칼리드 이브라힘 알 술라이티 박사

DR KHALED IBRAHIM AL-SULAITI

2012 이후 카타라 문화 빌리지재단 이사장

매년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카타라 전통 목조 범선(다우) 페스티벌>, <매사냥 페스티벌Falcons Festival>, <Halal Hal Qatar(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동물 관련 축산업자들이 참가하는 카타르 전통 문화유산축제-웁긴이)>, <Al-Qalayel Al-Qannas Championship(주로 겨울에 열리는 전통 사냥 문화 축제-웁긴이)> 등이 있다. 또한 카타라 스튜디오, 카타라 문화 포럼, 아랍-국제관계 포럼, 알 깔라일 협회Al-Qalayel Association, 알 까나스 협회Al-Qannas Association(전통 사냥 협회), 시인 협의회Council of Poets, 전서구(傳書鳩)재단The carrier pigeon Association 등의 설립을 감독했다. 기타 Voice of the Gulf Radio, 어린이 문화 센터, 비다야Bedaya 센터, 카타르 뮤직 아카데미, 브룩 매거진Brook Magazine, 카타르 우표 박물관, 카타르 박물관 모형, 카타르 아트 센터, 기타 카타라 걸쳐 빌리지 내 문화 센터들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 내 다양한 센터와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육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는 행사와 문화 예술 활동을 제공하며 가족, 아동, 여성, 창작자, 지식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기획하여 카타르의 유산과 문화 유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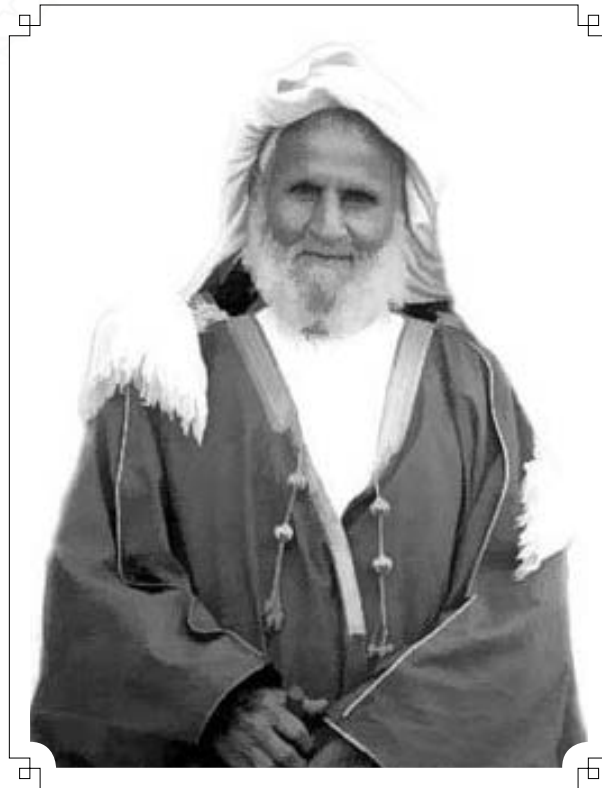
움무 살랄 무함마드 캐슬

19세기에 지어졌으며 도하 북부 20km 떨어져 있다. 규모와 두꺼운 모래 색상의 벽이 특징이다. 전형적인 아랍 문양으로 장식한 외관이 두드러진다.



움무 살랄 무함마드 요새 내 바르잔 타워

성채와 요새들이 카타르 국민들이 1971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영토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투쟁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셰이크 압둘라 빈 자심 알 싸니

Sheikh Abdullah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세 번째 군주이며 카타르를 건국한 셰이크 자심 빈 무함마드 빈 싸니
아들이다(1913-1949).



카타르 국경일

매년 12월 18일, 도하 코르니쉬에서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 날 2022 FIFA 월드컵 최종 결승 경기가 열렸다.



국경일 퍼레이드 중 일부

카타르 국가

하늘을 높이신 알라에게 맹세하노니
빛을 퍼뜨리신 알라에게 맹세하노니
카타르는 언제나 자유로울 것입니다.

충성심으로 승화되어
선조들의 길을 따르며
선지자들의 인도로 전진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 카타르는
존엄과 영광의 서사시이니
카타르는 선조들의 땅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의 시대엔 비둘기가 되며
희생의 순간에는 전사가 되네

5장

국민과 파워

국민과 파워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이른 아침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국왕이 아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에게 자발적으로 양위를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아랍 세계와 중동지역은 전례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고 카타르로서는 새로운 정치적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다. 현대 아랍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이 고무적인 조치는 리더십과 지혜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보여주었다.

아랍권에서 긴장이나 갈등 없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이례적인 이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당시 역사적인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아들이자 믿음직한 왕세자였던 셰이크 타밈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이다.

현대 카타르 국가의 건국자이자 2030년 비전의 리더인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시대에 카타르가 이룬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에 집착하거나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왕권과 연관 짓지 않았다. 개인의 영광이나 사리사욕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기사도의 정신으로 말에서 내려왔으며 국가라는 혈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자 했다.

18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국왕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면적이 작은 국가를 이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변모시켰다. 권력의 정점에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은 퇴위를 결정했다. 그는 카타르 국민과 지도부가 전 분야에

서 실현한 성장과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했으며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 차별 없는 정부 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도에서도 잘 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나라에서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핵심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퇴위하던 날 아버지 국왕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연설을 했다.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내가 나만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내가 바랐던 것은 국가의 최고 이익이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역동적인 잠재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맡아 새로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업적과 성공의 길로 이끌 자질이 충분한 유망한 리더십이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나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에게 왕위를 이양하고자 하며 셰이크 타밈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당시 아랍 세계에서 보기 드문 품위 있고 존경받는 권력 이양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셰이크 하마드 아버지 국왕과 셰이크 타밈 새로운 국왕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란히 서서 새로운 국왕을 축하하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 국민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던 그 감동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

2003년 6월 25일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대국민 연설에서 아들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왕세자에게 양위와 현대 카타르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셰이크 타밈에게 충성 맹세를 하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나란히 서서 셰이크 타밈을 새로운 지도자로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으로 모려드는 카타르 국민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취임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이의 신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근대 카타르의 진정한 건국자이자 르네상스 개척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생활 등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과 경험을 쌓아온 젊은 리더십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카타르 만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셰이크 타밈 국왕은 신뢰를 받아들이고 책무를 맡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1998년 영국 왕립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후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학 교육을 완수했다.

2003년 8월 5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는 왕세자 겸 군 총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기간에 그는

교육, 보건, 환경, 개발, 기획, 통신과 IT 등을 다루는 고위 부처와 위원회를 이끌었다. 모국어인 아랍어 외에도 영어와 불어에 능통하다.

또한 공공사업부 이사회, 카타르 투자청(카타르 국부펀드), 카타르 대학 이사회,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활약했다. 2008년 출범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최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외교적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카타르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차별 없는 정부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왔다. 일부 서구 언론들이 아랍 지역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1999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는 아랍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공직 출마 및 지방의회 선출권을 보장했다. 의회는 건설 법규, 토지 계획, 고속도로, 상업 시설 기타 사안에 관한 결정과 입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카타르 내 최초의 시의회는 1950년 대 초에 구성되었으며 4년마다 29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이 2003년 4월 23일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

2003년 4월 카타르 국민들 역사상 최초의 헌법에 투표함으로써 2004년 4월 9일 효력이 시행되었다. 카타르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었으며 슈라 의회의 위원직을 최초로 임명이 아닌 선거로 선출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11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은 1972년에 최초로 구성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슈라 의회 총 28명의 위원 중 4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여성들이 장관과 고위 공무원직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했다.

슈라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일반 예산을 의결하며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전에는 모든 위원을 국왕이 지명해 왔으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은 취임 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20년 11월 칙령을 공포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임명제로 구성되던 슈라 의회를 2021년 10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 의회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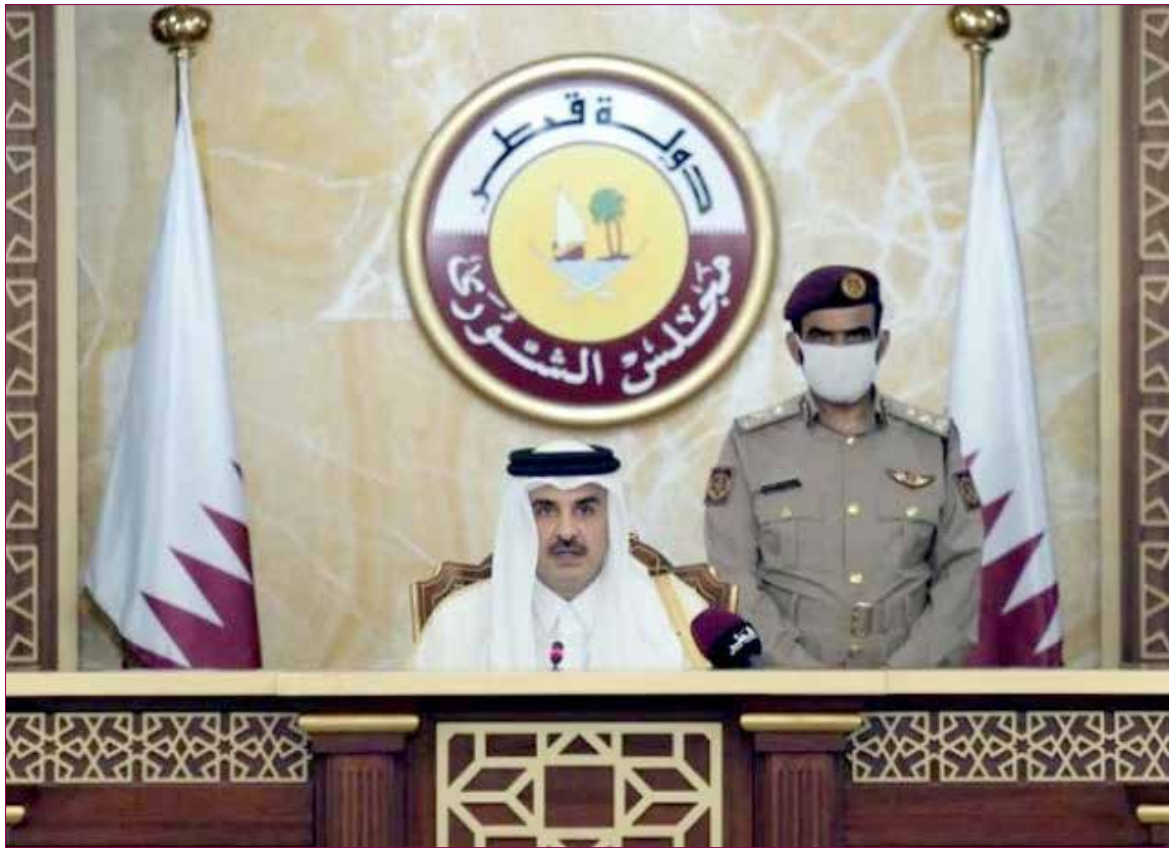
예상외로 카타르 내 첫 슈라 의회 선거는 총 45석 가운데 국왕이 임명하는 15석을 제외한 의석 30석을 두고 28명의 여성 후보를 포함, 28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거리와 도로, 미디어에서는 선거 운동이 크게 늘어났으며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간에 토론회가 열리고 그동안 카타르에서 한 번도 목격되지 못한 다양한

정치 활동들이 늘어났다. 다행히 잘 조직되고 운영되었으며 모두가 협력하는 공정한 경쟁을 보여주었다.

카타르 국민들이 충분한 복지와 부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자칫 투표에 무관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차분히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카타르인들의 예상치 못한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들과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카타르의 첫 직접 의회 선거에 집중되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통 의상을 입은 카타르인들이 학교와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섰으며 이는 카타르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많은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이 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생산지이며, 3,600억 달러 이상의 국부펀드를 보유한 나라.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인들과 아프간국민들을 대피시켰던 중책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도하의 향후 향방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슈라 의회 선거실시 발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2020년 11월 제 49회기 슈라 의회 개막식에서 첫 슈라 의회 선거를 2021년 8월에 치를 것을 선언하고 있다.



카타르 슈라 의회 역사상 최초로 치르는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_2021.10.2





카타르인들이 자국에서 치르는 첫 의회 선거에 열띤 참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21
첫 카타르 슈라 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6장

인적 개발

인적 개발

과거는 추억에 불과하고 미래는 비전에 달려있다. 카타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007년에 수립하고 2008년에 승인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이다. 비전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카타르를 국민들이 세대를 넘어 고귀한 삶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된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람에 투자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비전은 네 가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주요 중점 안을 바탕으로 목표와 실현 방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구성했다:

- 번영된 사회 건설을 위해 카타르 국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인적 개발
- 윤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다른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개발을 통한 사회 발전
- 현재와 미래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경제 개발을 통한 국가 부흥의 중추를 구성하는 경제 발전
- 경제와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환경 개발. 전 세계는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끔찍한 재난과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카타르는 교육과 보건처럼 중요한 분야에서 인적 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21년 예산은 174억 리얄(47억 달러)을 교육 분야, 165억 리얄(45억 달러)을 보건 분야에 편성했다.

카타르 현대사에서 최초의 대학인 카타르 대학은 1977년 설립되었다. 1995년 8월에는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아버지 국왕의 첫 결의안 중 하나로 ‘카타르 교육 과학 사회발전재단Qatar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카

타르재단은 설립 후 수년 만에 원대한 목표를 달성해 교육 및 과학과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했다. 현재에도 전통과 문화유산 보존과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개방 간의 어려운 균형을 유지하면서 카타르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타르 교육 보건 학문연구재단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미 항공우주국(NASA)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들과 중요한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카타르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전문 학부와 기술학교를 개설하여 인적 개발의 르네상스를 이어왔다. 2003년에는 교육 도시인 에듀케이션 시티를 조성하여 수많은 교육기관, 학문기관, 연구소 등을 입주시켰다. 일례로 2008년 학문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의 2.8%를 편성하기도 했다.

발전의 비결을 사람으로 내세운 카타르는 공립 학교와 국립 대학교를 늘리고 명문 국제 학교와 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 양적 질적 발전에 힘썼다. ‘카타르 재단’ 캠퍼스에는 2010년 설립한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를 비롯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8개 대학교의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 노트르담 대학교,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웨일 코넬 의과대학Weill Cornell, 텍사스 A&M 대학교, HEC 파리 국제 경영대학원HEC Par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기타 수많은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있다.

스쿨과 교육기관, 다양한 전공에서 졸업생들 수가 늘면서 2020년 카타르 최초로 사립대학교인 루사일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최신 학문과 연구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오늘 날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IT, 통신, 디지털화,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혁신에 발맞추기 위해 전문가들 및 전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인적 개발이 카타르 비전의 한 축이라면 다른 중요한 축은 보건이다. 건강이 없다면 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인적 자원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인 보건 역시 중요하다.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보건 분야에서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1998년 4개에 불과하던 의료기관은 2012년 13개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알 쿠르 의료기관Al-Khor Hospital (2005), 알 아말 의료기관Al-Amal Hospital(2006), 심장 전문병원(2011), 쿠바 카타르 병원Cuban Qatari Hospital(2012), 알 와크라 병원Al-Wakra Hospital (2012) 등이 있다.

하마드 의료재단Hamad Medical Corporation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카타르 내 최고의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24개의 1차 진료 클리닉과 5개의 전문 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카타르 내 모든 진료과목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국제 의학교육인증 위원회(AGGME-1)로부터 기관 인증을 받은 중동 지역 내 최초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었다.

2011년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2002년 웨일 코넬 의과대학이 개교하였고 2004년에는 세계 정상급 병원이자 외래진료센터인 시드라 의학연구센터Sidra Medical and Research Center가 문을 열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의 재임 동안 카타르는 하마드 빈 칼리파 메디컬 시티에 새로운 병원들을 개원하여 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카타르 국민들을 비롯하여 국내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해 왔다. 즉, 무상이거나 정부가 발급하는 의료 보험 카드를 통해 무상과 다름없는 형식적인 금액만 지급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타르는 지역 내 최초로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 전문 사립 병원인 ‘아스페타르Aspetar’병원을 개원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은 이 지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세계 최고 축구 클럽의 유명 축구 선수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 센터로 인정받았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카타르는 미망인, 이혼녀, 고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금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5성급 결혼식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카타르재단 산하에는 기업가와 청년들 지원을 전담하는 ‘나마Namaa’, 정신 지체 장애인과 자폐인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알 사팔라Al-Safallah’,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위파Wefaq’, 고아들의 자립을 돕는 ‘드리마Derima’, 가정 폭력 및 군열로부터 보호를 위한 ‘아만Aman’, 시각 장애인 지원을 위한 ‘누르Nur’, 행동 건강behavioral health을 위한 ‘다음Da'm’, 노인 돌봄을 위한 ‘이흐싼Ihsan’ 등의 맞춤형 기관들이 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은 한 연설에서 "알라는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천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부는 선대 국왕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했던 비전과 대범한 실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셰이크 타밈 국왕은 인적 개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비록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지만 더불어 우리의 자원과 경제를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적인 인류, 무책임하고 과잉에 빠지지 않는 인류 육성과 관련 있습니다."라며 덧붙였다.



카타르 대학

1977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0개 대학에 선정되었다.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

2010년 인적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카타르재단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셰이카 힌드 빈트 하마드 알 싸니

SHEIKHA HIND BINT HAMAD AL THANI

카타르재단 이사회 이사장이자 CEO. 교육, 과학, 연구, 지역 발전 등 국민과 공동체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단체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

2017년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있다.



노스웨스트 대학- 카타르

2019년 졸업식



웨일 코넬 의과대학
2019년 졸업식



텍사스 A&M 대학교-카타르
공과대학 2018 졸업식



카네기 멜론 대학교-카타르

2015년 졸업생들



HEC 파리 국제 경영대학원-카타르

2018 졸업식



하마드 의료재단

사회 각계각층에게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대규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스페타르 병원

중동 지역 내 최고의 스포츠 의료 전담 센터



시드라 메디슨

여성,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문 의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카타르재단이 설립한 의학연구센터. 최고의 의료교육과 임상 및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알 와크라 Al-Wakra 병원

2012년 개원했으며 2014년 전문 의료 인증 기관인 국제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로부터 인증받았다.



쿠바병원

도하 서부 두칸Dukhan과 알 샤하니야Al-Shahaniya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2년 오픈한 차별화된 의료 시설



알-샤팔라 Al-Shafallah 센터

정신 지체 장애인과 자폐인들이 카타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웨딩 컨벤션 단지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5성급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7장

안보의 오아시스

안보의 오아시스

카타르는 매일 안전과 안보의 축복 속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분쟁과 전쟁으로 안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부재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분쟁과 갈등이 첨예한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카타르는 국민들과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 관광객들의 안전과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2021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넘베오Numbeo가 수집한 135개 국가 중에서 카타르는 지난 3년 연속으로, 그리고 역사상 4번째로 가장 안전하게 치안이 잘 되어있으며 범죄가 없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넘베오는 저명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중 하나다. 계획적인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및 기타 유형의 범죄 발생률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의 범죄율과 치안 수준을 평가한다. 넘베오는 지난 2009년부터 각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율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범죄 지수 평가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르며 국가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거나 혹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각국의 범죄율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카타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것에 대해 일말의 이견이 없다. 카타르 사람들은 뛰어난 윤리, 관대함, 겸손함, 폭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가진 국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국가들이 종종 보안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모욕 또는 상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카타르에서는 자국민 및 거주민들과 안보 기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카타르의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력과 낮은 범죄율 사이에는 사실 연관성이 없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여전히 거의 주기적으로 학교와 대학에서 무작위 총격 사건과 무장 강도, 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비록 빈곤이 많은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 이상이다. 법률과 규정보다 사람들의 문화적인 소양과 성향, 안전과 평화,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달려 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며 기업과 상점은 총기를 판매하고 로비스트와 정당은 이를 옹호한다. 총기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 소유로 인한 잠재적 인명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치안

카타르에서는 자국민과 거주민, 관광객, 방문객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치안을 누릴 수 있다.

카타르에서는 누구나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범죄가 극히 드물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어 집 현관문을 열어두었더라도 걱정 없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치안은 가장 값진 축복이다. 치안을 통해 국가가 평온하고 생계가 보장되어 국민의 생명과 명예, 재산이 보호된다. 국민은 성장하고 사회는 번영할 수 있다. 카타르가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을 제공하는 이유다.

반면 이 지역 국가와 전 세계 국가들을 살펴보다도 치안의 부재로 인해 겪어야 하는 사람들의 혹독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전쟁과 분쟁의 재앙을 겪고 있으며 공포, 불의, 부패, 파괴가 만연하고 공황과 불안이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사망에서 죽음이 도사리지만 범죄자들과 폭군들의 탄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사람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고 가난과 궁핍한 생활에 길

들 수 있다. 하지만 치안과 안전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카타르가 갑자기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 카타르의 치안은 내무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보안 요원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느낌이나 마주칠 염려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나 편견 없이 성실하게 대하며 앞장서서 사람들을 돕는다.

카타르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은 종종 카타르 보안 요원과 경찰이 자신들을 대하는 품위 있고 세련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본국에서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폭력, 억압, 부패에 시달리거나 위반 사항을 취소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고 수

수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카타르는 개인과 보안 요원 간 직접적인 마찰이나 접촉 기회를 줄여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카타르는 수수료나 벌금과 같은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해 전자 납부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거주민 또는 방문객의 뇌물 수수, 권력 남용,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Metrash 2는 카타르에서 가장 효과적인 앱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앱은 국민과 거주민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무부의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국과 거주 허가, 교통 서비스 등 1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전자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동시에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다.

카타르의 치안 분야는 범죄율을 대폭 낮추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고 안전 지수는 가장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카타르는 치안 안전 분야에서 과거의 성과를 이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전 세계 순위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랍 지역에서 1위를 유지해 안정적인 치안 수준을 반영한다. 넘베오 지수는 연 2회, 연초에 한번 중반에 한번 국가 순위를 분류하고 있다.

2021년 글로벌 랭킹에서 정상을 차지한 카타르의 뒤를 이어 대만, 아랍에미리트, 오만, 맨섬Isle of Man, 스위스, 홍콩, 슬로바키아, 일본, 조지아공화국이 상위에 올랐다.

호주 시드니 경제평화연구소는 2020년 6월 2020년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했다. 카타르는 중동·북부아프리카 지역(MENA) 1위, 전체 27위를 차지하면서 2019년 세 단계 올라 총 163개국 가운데 글로벌 지수에서 상위를 유지했다.

카타르는 걸프와 아랍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 순위에서 아랍 국가 중 1위,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이번 순위는 카타르 비

전 2030과 국가 차원의 안보 강화 전략에 부합하는 전 세계 안보 분야에서 카타르의 위상을 확인시켜 준다.

카타르는 2019년 글로벌 안전과 치안 기준에 관한 글로벌 금융 지수Global Finance Index에서 아랍지역 1위, 전 세계 128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치안 수준, 분쟁 발생률, 개인의 안전과 치안 수준, 자연재해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카타르를 투자 안전 수준에 있어 상위 국가로 평가했다. 글로벌 파이낸스 지수는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지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국가마다 종합 순위를 매긴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경제 안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파이낸스 지수가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목록에 따르면, 카타르는 상위 20개 국가 중 유일한 아랍 국가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카타르의 현대 역사는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패로서 간부 육성을 통해 안보를 강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공군사관학교는 2014년 1월, 육사는 2014년 6월 경찰대학은 2018년 1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카타르 항공 아카데미는 조종사, 정비 엔지니어, 항공 교통 관제사, 기상 전문가, 공항 운영 관리 및 항공 노선 관제사를 위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내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세계 군사 강대국들과 전략적 국방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카타르는 영공 수호를 위해 프랑스 라팔Rafale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Typhoons 전투기 등 첨단 장비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튀르키예 함정과 이탈리아 잠수함으로 해군 역량을 강화하여 영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카타르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방법과 전략들은 안전과 안보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경찰대학 1기 졸업식_2019.1



경찰대학 1기 후보생들_2019.1





아흐마드 빈 무함마드 사관학교 16기 졸업식





항공대학(1기-조종사)_2014. 1



알 자임 항공대학Al-Zaeem Air College 8기 후보생들 졸업식_2021. 1





카타르 항공 아카데미

조종사,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 항공 교통 관제사, 기상 전문가, 공항 운영, 항공 노선 관제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육사 졸업식_2014. 1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 국가방위보안센터National Security Shield Center를 방문하고 있다.



관세청

상품의 국내 반입 및 반출을 감독하며 밀수 방지와 통관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합동전쟁훈련센터

카타르 군대의 방위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라팔 전투기 첫 기체 인수_2019. 6



훈련함 NORTH

카타르가 튀르키예 이스탄불市 아나톨라 조선소에서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 훈련함 중 하나. 카타르 아미리 해군의 훈련을 담당할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카타르내무부

카타르 내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보안 요원과 국민, 거주민 간 세련되고 교양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장

인류의 존엄성

인류의 존엄성

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면서 인프라, 경기장, 호텔 등 월드컵 관련 사업에 예산 2천억 달러를 편성한다고 발표하자 서구 언론은 일제히 관심을 보였고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하는 인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주목했다. 이때 카타르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카타르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인권 단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교훈을 주었다.

카타르는 월드컵 유치를 인간의 존엄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에 기반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다. 번영하는 걸프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수의 언론 캠페인은 국가로서의 카타르와 그 곳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 임금을 체납하거나 한 여름 수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기업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카타르는 위기와 도전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 비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카타르는 시장과 이해 당사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적용했다.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2015년에 입안된 이주민의 출입국과 거주를 규정하는 법안을 2020년에 추가로 개정

하여 카타르에 거주한 적이 있는 이주민은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전 규정에서는 국외 이주민이 2년이 지나기 전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경우 스폰서 또는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했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자칫 이주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제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거주 외국인이 고용주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카타르는 급여를 전산상에서 지급하는 제도,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설립, 근로자 지원 기금 조성 법안 마련, 인신매매 방지 국가위원회와 외국인 출국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공동 노동위원회 운영 승인 등 임금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타르가 투명한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듯 2018년 도하에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유엔 산하 기구다. 유엔 사무소는 카타르 행정자치부, 노동부, 고용주, 노동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카타르 정부가 고용 시장에서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과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타르는 2020년 8월 걸프 지역 최초로 고용스폰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간의 고용 계약으로 대체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스폰서제도(카팔라)는 근로자를 고용주에 묶어 두어 근로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없

었다.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조건을 폐지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했다.

또한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동 지역 최초로 최저임금제(1,000리얄)를 도입했다. 물론 이러한 개혁조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 없이 가사도우미, 가정부 등 모든 국적과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카타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숙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숙식을 직접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월 300리얄 이상의 식대와 월 500리얄 이상의 주거비를 지급해야 한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카타르가 역사적인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평가한 것처럼 카타르는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기업에는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카타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다. 스폰서제도(카팔라)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카타르의 리더십은 모든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국가들도 카타르의 선례를 따르도록 강조했다. 카타르가 실천한 또 다른 고무적인 사례는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시티 건설이다. 도하 남서쪽 산업지대 근처에 있는 미사이미르 Mesaimeer 시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총 1,500만 리얄의 건설 비용으로 110만㎡의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최대 10만명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다. 건설 기간은 약 3년 걸렸으며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동자 시티 내 각 건물은 1층과 2층 두 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104개의 객실이 있다. 카타르에서 가장 큰 크리켓 경기장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 각국 대사관과 관련 당국과 협조하여 다양한 기념 행사, 개인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4개의 영화관과 무역센터가 있는 상업 지역, 도시 내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취향과 문화에 맞춰 이용가능한 200여 개의 키오스크로 구성된 마켓이 있다. 종교 단지 근처에 있는 시티에는 두 개의 모스크와 최대 6,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이 있다.

카타르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외면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고 실행했다. 이에 따라 일사병으로부터 근로자를 추가로 보호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평균 기온이 한계 수준에 도달하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야외 작업이 금지되었다.

또한 주변 온도와 습도, 자외선, 풍속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장 실내 온도가 섭씨 32.1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즉시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과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냉방 조끼를 지급해야 한다.

2021년 10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율인 노력과 지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76차 유엔 총회는 카타르를 2022년 1월부터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국에 출마한 카타르는 직접 개별 비밀 투표에서 총 193표 중 182표를 얻어 선출되었다. 카타르가 펼친 적극적인 인권보호와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사이미르 MESAIMEER 지역 내 노동자 시티

도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노동자 시티다. 2015년 11월 카타르 내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추진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공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 내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주 노동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카타르는 타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노동자 시티에 준공한 노동자 의료 센터



노동자 시티 내 주거지에 있는 침실



미사이미르 노동자 시티는 약 1백만㎡의 면적에 약 10만명의 수용인원을 갖추고 있다. 최고 안전 기준에 부합한 55개의 건물로 이루어졌으며 기본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거주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상업 단지, 크리켓 경기장, 문화 공연장, PC방, 안전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카타르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제노동기구 (ILO) 도하사무소를 개설했다. _2018. 4



노동자들에게 냉방 조끼를 지급하는 장면





근로 건설 현장 내 노동자들을 위한 오락 활동 지원





카타르 노동부 장관 알리 빈 사미크 알 마르리박사(Dr. Ali bin Samikh Al-Marri(왼쪽)는 2021년 11월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MO) 측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카타르가 노동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알 마르리박사는 카타르에서 인권에 관한 국가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르얌 빈트 압둘라 알 아티야 Maryam bint Abdullah Al-Attiyah 카타르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과 카타르 국민들이 물려받은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 아티야 사무총장은 2022년 3월부터 3년의 임기로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카타르는 인권 보호와 강화, 인간의 존엄성 보존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182표를 얻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_2021. 10

9장

역경에 대처하기

역경에 대처하기

2017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걸프지역과 아랍 세계에는 운명과 피로 단결을 유지해 오던 국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와 심각한 도전이 휘몰아쳤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이웃 걸프 국가들과 이집트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육로, 해상, 영공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당시 카타르는 이 조치를 인력과 자원의 전면 봉쇄로 받아들였다. 그 후부터 카타르는 위기를 종식하고 걸프지역과 아랍 세계의 단합을 회복하고 대화를 통해 갈라진 벽의 균열을 메꾸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카타르는 위기 발생 초기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문명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협상과 논의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카타르의 원칙적인 입장은 3년 반 가까이 지속된 위기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화해하여 형제국 간 외교 관계 회복에 중요한 창구임이 입증되었다.

카타르는 국방, 안보, 경제, 투자, 교육, 스포츠,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전략적인 동반자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여 놀라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과 결단력 및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언급할 만한 성과 중에는 2018년 1월에 처음 열린 카타르-미국 간 전략적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이주 문제, 난민, 인도주의, 대테러 관련 유엔 기구들 사무실을 도하에 잇따라 개설했다. 또한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정을 체결하여 2021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주 나토 카타르대표부를 설립하고 무관을 파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편, 카타르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경제 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고자 했다.

국내 성과로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하며 카타르 경제의 견고함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카타르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8년 2.8%, 2019년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리포트에서 전망한 2.4%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여러 산업분야에서 800개가 넘는 카타르 기업이 신설되었다.

카타르는 위기를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메이드 인 카타르'라는 문구를 실은 유제품과 가공류 등 질 좋은 식품들이 카타르 시장에 처음 등장하여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많은 제품을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2017년 하마드항 프로젝트, 도하 지하철 Rail, 고속도로망 확충 등 여러 대규모 인프라, 교통, 통신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수자원 안보를 위한 주요 전략적 저장시설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새로운 해상 항로와 항공 노선을 개방하고 세계를 향한 두 개의 거대한 관문인 하마드 국제항과 국제공항을 개발함으로써 카타르는 거의 전면적인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었다. 덕분에 도로, 교량, 터널, 경기장 등 2022년 월드컵 개최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자재 및 건축 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2017년 5월 대회 개최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장을 새로 신설했다.

카타르는 국내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2019년 1월 외국인 자본 투자법을 시행하여 기존에 카타르 파트너가 있어야 했던 조항을 외국인 100% 소유 허용으로 개정하고 세금 및 관세 면제, 토지 할당, 투자 수익 송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카타르 상공회의소와 카타르경제인연합은 식량 안보와 제조업 등 필수 산업에 투자하여 국가 경제 구조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非카타르인의 부동산 소유와 개발, 특정 조건에 따른 영주권 부여, 자본 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들 덕분에 카타르는 전 세계 162개국을 포함한 경제입법 지수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 신용등급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0년 5월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부여했다. 카타르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소득 수준이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확인했다.

걸프지역과 아랍 세계 사람들이 혈연, 가족 관계, 결혼으로 맺어진 공동 운명임을 고려할 때 위기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 2021년 1월 4일 일어나게 된다. 쿠웨이트 셰이크 아흐마드 나세르 알 무함마드 알 사바 외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 당일 즉시 영공과 육상 및 해상 국경을 재개한다고 합의했음을 발표한 것이다. 곧이어 한 목소리로 단결을 보여주는 걸프협력회의(GCC) 정상 회담이 사우디 알 올라주에서 개최되었다.

같은 날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알 올라 정상회담에 카타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위기를 종식하고 국경과 영공을 다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역 국민들에게는 형제 국가들이 예전의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내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해 주는 협력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제 1차 카타르-미국 전략적 대화_2018. 1

사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제임스 마티스James Mattis 前 미 국방장관, 렉스 킬러슨Rex Tillerson 前 미 국무장관, 칼리드 알 아티야 카타르 국방부 국무장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 라흐만 알 싸니 카타르 외교부 장관이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알 올라 정상회담

피와 혈연과 공동 운명으로 결속된 국가와 국민들 간 관계가 회복되었다.



군사 및 안보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나토 (NATO) 사무총장이 뒤에 서 있다. _2018. 3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알 올라에서 열린 제41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_2021. 1



국내 생산품 지원을 위해 열린 <메이드 인 카타르 전시회> 개막_2017. 12



카타르는 2017년 지역 내 운송 허브가 되기 위해 75억 달러를 들여 하마드 국제항을 개항했다.



자본 진입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카타르는 글로벌 경제 입법 지수에서 상위
에 랭크되었다.



전국적으로 인프라와 고속도로망을 확충했다.

금융 분야

역경을 극복하는 동안, 카타르 금융권, 민간분야 기업인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카타르 금융 분야는 대규모 투자와 탁월한 전문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카타르가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국제법과 원칙, 협정을 준수한 덕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리알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중앙은행은 미 달러당 3.64리알의 고정 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금융 부문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카타르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내 경제 및 금융과 관련한 적절한 결정과 통화 및 금융 정책들의 실행도 통화 강세에 한 몫을 담당했다.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 역시 통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균형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0년과 2021년 카타르 금융 분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에 맞서 극복한 역량은 연간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의 결과 저금리 및 기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은 카타르 금융이 수익을 실현하고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카타르 국립은행, 국제 이슬람은행, 마스라프 알 라얀Masraf Al Rayan, 알 마스라프Al Masraf, 상업은행, 도하 बैंक, 카타르 퍼스트 बैं크, 알 아흘리 बैं크Al Ahli Bank 등이 모두 2021년 순이익을 내며 견실한 성장을 실현했다.

여러 국제기관과 단체들은 2021년과 2022년 카타르 경제에 대하여 각각 평균 약 2.8%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기구의 낙관적인 전망은 카타르 경제의 강점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카타르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과 실적에 힘을 실어주었다.



카타르중앙은행

카타르 경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 1993년 8월 설립되었으며 미 달러당 3.64리알의 고정 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국립은행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내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이다.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2억 리알(약 36억 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국제 이슬람은행

2021년 전년 대비 7% 증가한 10억300만 리알의 순이익을 발표했으며 국제 이슬람은행의 총수익은 연말 기준 24.5억 리알에 이른다.



마스라프 알 라얀

2021년 12월 31일 기준 17억 1,800만 리알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카타르 이슬람은행

2020년 30억 6,500만 리알 대비 2021년 35억 5,500만 리알의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상업은행

2021년 전년 대비 77.1% 증가한 23.04억 리알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상업은행은 개인 금융, 무역, 정부 및 국제, 투자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타르 내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칸 (Dukhan) 뱅크

두칸뱅크의 자산은 1,110억 리알 이상이며, 2021년 말, 12억 리알의 이익을 실현했다.



알 아흘리 Al Ahli 뱅크

2021년 기준 7억1,300만 리알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도하뱅크

2021년 기준 7억400만 리알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카타르개발은행

카타르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업인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지붕 아래 윈스톱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자문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

새의 양날개처럼 공공과 민간 분야는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를 강타한 섯다운이라는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했다.

카타르상공회의소와 카타르 남·녀 경제인연합회는 서둘러 기본적인 수급 균형을 위해 외부 파트너와 투자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정부 지원과 항공과 해상을 통한 새로운 무역 활로도 함께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유제품, 가금류, 심지어 다양한 과일과 채소까지 국내 생산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부문은 건설, 제조,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다각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카타르 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은 경제의 중추를 튼튼

히 뒷받침하는 조속한 조치 시행에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국가의 의지와 결의, 국가적 자긍심을 담은 국산품이 등장했다. 카타르는 팬데믹 기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보건 관리 유지와 경제활동과 시장 간 어려운 균형을 해냈다.

팬데믹 초기 불확실성 속에서 카타르는 750억 리얄 규모의 민간 부문 경기 부양책을 승인하는 등 위기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을 시작으로 카타르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했다. 점진적인 제한 조치 완화와 경제 활동 재개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카타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 수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자급자족실현

카타르는 2030년까지 내수시장에서 상품과 야채 등의 자급자족실현을 목표로 하는 농업 플랜을 수립했다.





발라드나 BALADNA 社

유제품의 자급자족실현으로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던 경제구조를 재정비한 이후 첫 수출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4,000마리의 헝가리 소가 화물기에서 내리는 인상적인 장면. 이를 계기로 위기를 기회와 성과로 바꾼 카타르 국가 산업은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다.



마이팜 MY FARM 社

2019년 1월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 플랜트가 설립되었다. 카타르는 단시간에 신선한 닭고기를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되었다.



가금류 생산을 위한 통합 산업.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친환경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카타르상공회의소

민간 부문 지원과 국내 경제 및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해 1963년 설립되었다.



카타르 무역 산업 디렉터리 론칭

카타르상공회의소는 2019년 민간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카타르 무역·산업 디렉터리》를 론칭했다. 기념행사에 셰이크 칼리파 빈 자심 빈 무함마드 알 싸니 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과 무함마드 빈 아흐마드 빈 타와르 알 쿠와리 제1부회장(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카타르 비즈니스맨 협회

셰이크 파이살 빈 까심 알 싸니 회장을 중심으로 카타르 비즈니스맨 협회는 도전을 극복하고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민간 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친목 도모와 유망한 신 산업 개발을 위해 국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셰이크 나와프 빈 나세르
알 싸니
이사



이사 압둘 와합 아부
이사
사무총장



셰이크 칼리드 빈 싸니
알 싸니 박사
제2부회장



후세인 이브라힘 알 파르단
제1부회장



셰이크 파이살 빈
까심 알 싸니
회장



사우드 빈 오마르 빈 하마드
알 마나
이사



사리다 싸아드 주르반
알 카야비
이사



셰이크 하마드 빈 파이살
빈 싸니 알 싸니
이사



압둘라 빈 나세르
알 미쓰나드
이사



셰이크 압단라 빈 싸니
알 싸니
회원



마끄불 하킴 칸
회원



이브라힘 무함마드 알 자이다
회원



무함마드 칼리드 알 말만
회원



칼리드 아흐마드 알 만나이
회원



셰이크 투르키 빈 칼리드
빈 싸니 알 싸니
회원



살라흐 무함마드 이브라힘
알 자이다
회원



아델 알리 빈 알리
회원



나빌 아부 이사
회원



하산 아흐마드 알 이프란지
회원



셰이크 무함마드 빈 파이살
빈 까심 알 싸니
회원



나세르 슬레이만 알 하이다르
회원



알리 압둘 리다
마슈하디
회원



이브라힘 하산 이브라힘
알 아스마크
회원



셰이크 알리 빈 압둘라
빈 싸니 알 싸니
회원



압둘마짓 아흐마드
알 사야비
회원



자베르 살린 알 하라미
회원



라시드 무함마드 알 누아이미
회원



칼리드 나세르 압둘라
알 미쓰나드
회원



하마드 빈 알리 알 헤드파
회원



다피르 무스타파 할라와
회원



이흐산 칼리드 알 키야미
회원



압둘라 무함마드
알 루마이스
회원



셰이크 파이살 빈 파하드
알 싸니
회원



무함마드 알타르비 무슬림 비틸
회원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카타르 비즈니스맨 협회 회원들



카타르 여성경제인 협회

셰이카 알 아누드 빈트 칼리파 빈 하마드 알 싸니 Shiekha Al Anoud bint Khalifa bin Hamad Al Thani 여사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카타르 내 가장 중요한 여성 경제인 단체 중 하나다.

10장

월드컵 도전

월드컵 도전

2010년 12월 카타르는 21세기 들어 용기와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시도를 한다. 2022년 FIFA 월드컵 유치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미국, 호주, 대한민국, 일본과 경합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카타르는 아랍과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하는 영광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월드컵은 여름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가끔 50도가 넘는 걸프지역에 위치한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치 신청 당시 카타르는 칼리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한 곳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월드컵 기준에 맞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카타르는 경기장 7개를 새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카타르는 더위와 자연의 제약에 굴복하는 대신 에어컨이 완비된 경기장을 짓겠다는 전례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회 개최를 신청했다.

카타르가 아무런 사전 검토나 비전, 능력 없이 거대한 도전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카타르는 《2006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 다년간 주요 스포츠 행사를 조직하며 역량과 기량을 충분히 쌓아왔다.

2022년 월드컵 유치가 결정된 후 사람들은 카타르의 비전과 야망,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 아랍과 이슬람 세계 곳곳을 환호성으로 채우겠다는 열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총성과 무력 충돌 소리 외 다른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부 서구 국가에는 실로 충격이었다. 카타르는 이 지역에 대한 서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도전했다.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아랍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역량과 능력으로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시를 품은 장미처럼 온갖 장애물과 난관이 예상되었던 도전이었기에 더욱 카타르의 성공은 더욱 인상적이다.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 신중하게 대처한 카타르의 저력이었다.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후 일부에서는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는 카타르가 7개의 경기장을 신축하여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는 도전이 무모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최신 국제 규격에 맞춰 건설된 경기장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며 카타르 사막 한 가운데서 꽃다발처럼 피어났다.

카타르는 경기장 건설에 만족하지 않고 최신 냉방 기술, 첨단 인프라와 시설, 숨 막히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끝없이 놀라게 했다. 또한 2022년 월드컵 이후에도 이 이벤트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남기려는 생각을 절대 잊지 않았다. 카타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대회를 끝난 후 경기장 관중석을 해체하여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부하는 등 카타르의 선함과 관대함이 드러나는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월드컵 유치 성공은 카타르가 국제무대에서 부상하는 시작에 불과했다. 카타르는 2015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2021 FINA 경영 월드컵FINA Swimming World Cup,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수많은 글로벌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음과 동시에 일부 비판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정치, 외교, 금융, 비즈니스, 글로벌 에너지 안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플레이어이자 파트너임을 모두에게 증명했다. 전 세계에 걸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카타르의 여정은 국가와 국민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2019년 사상 처음으로 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스포츠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1년 뒤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무타즈 이사 바르심Mutaz Essa Barshim이 높이 뛰기 종목 금메달, 파리스 이브라힘Fares Ibrahim E.H. ELBAKH이 역도 금메달, 세리프 유누스Cherif Younousse Samba 와 아흐마드 티잔Ahmed Tijan이 비치발리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카타르는 아랍권에서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이 미국 뉴저지주에도 못 미치는 면적(11,500 km²)에 29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지만 현명한 통치와 통철함을 갖춘 리더십,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인구나 지리적인 조건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카타르는 모든 걸프 국가와 아랍국가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자부심의 모범이 되고 있다.



카타르 2022 FIFA 월드컵 유치 선정

아랍·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카타르가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던 결정적인 순간. _2010.12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선정되던 순간 카타르 전역에 환호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체육의 날

2011년 제정된 왕실 칙령 제 80호에 따라 매년 2월 둘째 주 화요일은 <전국 체육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체육의 날은 모든 국민이 가족 및 동료와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카타르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에 따라 2012년 카타르 최초로 체육의 날이 시행되었다. 체육의 날의 주요 목적은 운동을 장려하고 심장 및 혈관 질환, 당뇨병 등 앓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관련된 건

강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지역 사회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 날 국내 관련 부처와 민간 기업들은 직원과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한다. 관련 기관 중에는 보건부, 하마드 의료재단, 카타르 올림픽 위원회, 아스파이어 존Aspire Zone 등이 있으며 기타 여러 스포츠 단체들이 카타르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축구, 농구, 테니스, 태권도, 사이클링,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대회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육의 날은 팀워크, 단결, 협동, 참여, 체력 증진, 건강, 기타 스포츠 원칙들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는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스포츠 행사 외에도 체육의 날에는 전통 보트(다우) 경주 대회를 통해 카타르의 스포츠 유산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스포츠의 역할을 되새기는 카타르 문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타르는 33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 연속 자전거 도로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19년 사상 최초로 카타르 국가대표팀이 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거둔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국왕의 형제이자 왕세제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 알 싸니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 카타르 국가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역사적인 우승을 거두었다.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 알 싸니

SHEIKH JASSIM BIN HAMAD AL THANI

왕세제이며 스포츠와 선수들을 지원하는 카타르 주요 인사 중 하나



2019년 도하에서 개막한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오른쪽에 셰이크 주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이 보인다.



카타르올림픽위원회

많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최근에는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와 동메달을 따며 아랍권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무타즈 이사 바르심Mutaz Essa Barshim 높이 뛰기 금메달리스트(오른쪽), 파리스 이브라힘Fares Ibrahim E.H. ELBAKH 역도 금메달리스트(왼쪽), 셰리프 유누스Cherif Younousse Samba와 아흐마드 티잔Ahmed Tijan 비치발리볼 동메달리스트



셰이크 주안 빈 하마드 알 싸니

SHEIKH JOAAN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으로 카타르와 전 세계에 오래도록 기억될 많은 업적을 실현했다.



셰이크 압둘라 빈 칼리파 알 싸니

SHEIKH ABDULLAH BIN KHALFA AL THANI

카타르 前 총리이자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

1979 - 1989



故 셰이크 무함마드 빈 칼리드 빈 하마드 알 싸니

SHEIKH MOHAMMED BIN KHALID BIN HAMAD AL THANI

알라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前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

1991 - 1993



셰이크 무함마드 빈 파흐드 알 싸니

SHEIKH MOHAMMED BIN FAHD AL THANI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
1993 - 1995

재임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1995년 FIFA 청소년 월드컵 개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카타르가 주요 글로벌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조직할 역량이 충분함을 입증했다.



셰이크 사우드 빈 칼리드 빈 하마드 알 싸니

SHEIKH SAUD BIN KAHLID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
1995-2000

2000년 부터 2008년까지 청소년육성회 총재를 맡았으며 알 라이얀AL-Rayyan 스포츠클럽 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마지막 임기는 2019년이였다. 또한 1994년과 1995년에는 카타르 탁구협회 회장을 지냈다.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1996년과 1997년 카타르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2006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개최권을 따냈으며 2006년 성공적인 개최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카타르 국왕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카타르올림픽위원회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올림픽 위원회 회장을 맡았고 그의 리더십 아래 카타르는 2022 FIFA 월드컵과 2014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특히 스포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카타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클럽을 소유한 스포츠 투자 전문 기업인 카타르스포츠투자사를 설립했다. 2006년에는 제15회 카타르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그의 지휘 아래 그 해 사상 최초로 전 아시아 국가가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이집트 알 아흐람紙에서 시행한 투표를 통해 아랍권 베스트 스포츠 인물상을 수상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하마드 알 싸니

SHEIKH MOHAMMED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유산 전달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and Legacy 이사이자 Qatar Endurance Racing Team리더. ‘2022 FIFA 월드컵 조직 최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06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말을 몰고 관중석에 올라 성화를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2022 FIFA 월드컵 유치를 진두지휘한 공로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스포츠 크리에이티브 어워드》를 수상하여 올해의 인물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조지타운대학 카타르에서 국제학 학사를 2013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비즈니스 경영 석사를 받았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하마드 알 싸니가 기사가 되어 2006년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성화를 밝히기 위해 말을 몰고 관중석을 오르는 모습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카타르는 2006년 아시안게임 개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경기장 시설과 운영 수준을 인정받아 카타르 올림픽위원회는 다시 한번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했다.



2015년 핸드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프랑스에 이어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나세르 알 카티르

MR. NASSER AL-KHATER

2022 FIFA 월드컵 집행위원장. 월드컵이 이 지역을 하나로 묶고 세계 역사에 자부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 알 싸와디

MR. HASSAN AL THAWADI

202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인 유산 전달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카타르가 국가로서, 그리고 아랍 및 중동 지역 움마(공동체)로서 2021년 FIFA아랍컵에 이어 다시 한번 역사적인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카타르 FIFA 아랍컵 2021

2022 FIFA 월드컵 개최를 한 해 앞두고 조직력과 시설을 시험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개최로 저력을 과시했다.



카타르의 조직력이 돋보였던 2019년 FIFA 클럽 월드컵. 영국의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다.



월드 랭킹 테니스 선수들이 카타르에서 개최한 카타르 토탈, 카타르 엑손모빌, 카타르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 등 주요 국제 경기에 참가했다.



칼리드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준장

BRIGADIER GENERAL KHALED BIN HAMAD AL-ATTIYAH

아랍 카타르 경찰 스포츠 연맹 회장, 카타르유도, 태권도, 가라데협회 회장,
2022 아랍 유도연맹 회장

아랍연맹과 카타르체육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카타르를 대표하여 활약하며 카타르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카타르 챔피언 나세르 살레 알 아티야

‘랠리의 전설’로서 17차례 중동랠리 우승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월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카타르는 2021년 처음으로 포뮬러 1월드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8년 이 책을 쓴 저자가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함께 FIFA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월드컵 경기장 및 시설 투어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22년 월드컵이 걸프국가와 아랍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특별한 대회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경기장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2022 카타르월드컵개최 준비를 마친 첫 경기장

1976년 처음 건설되어 2017년 5월 4만 석 규모로 리노베이션했다. 2022년 FIFA 월드컵에 대비하여 아라비안 걸프컵, 클럽 월드컵, 2019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토너먼트가 이 곳에서 개최되었다. 외부 외관을 바꾸고 약 1만2,000 석의 좌석을 추가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쳤다.



알 바이트 Al Bayt 스타디움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개막전 개최 경기장

6만 석 규모이며 4강전이 열린 경기장이다. 디자인은 과거 카타르와 걸프지역 베두인족이 거주하던 낙타 털로 지은 전통 가옥 또는 텐트를 형상화했다.



알 자누브 Al Janoub 스타디움

도하 남부 알 와크라Al-Wakra 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약 4만 석 규모의 경기장이다. 알 와크라라는 역사적으로 진귀한 진주를 찾아 채취하는 진주 다이빙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과거 카타르 사람들은 전통 범선(다우)를 타고 항해하면서 전문적으로 진주 무역에 종사했으며 알 자누브 스타디움의 디자인은 전통 보트인 '다우'의 돛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알 투마마 Al Thumama 스타디움

도하 중심에서 남쪽으로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4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2022 카타르 FIFA월드컵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경기가 열린 곳이다. 경기장의 원형 디자인은 아랍 전역에서 남성들과 어린이들이 착용하는 전통 모자 카흐피야에서 영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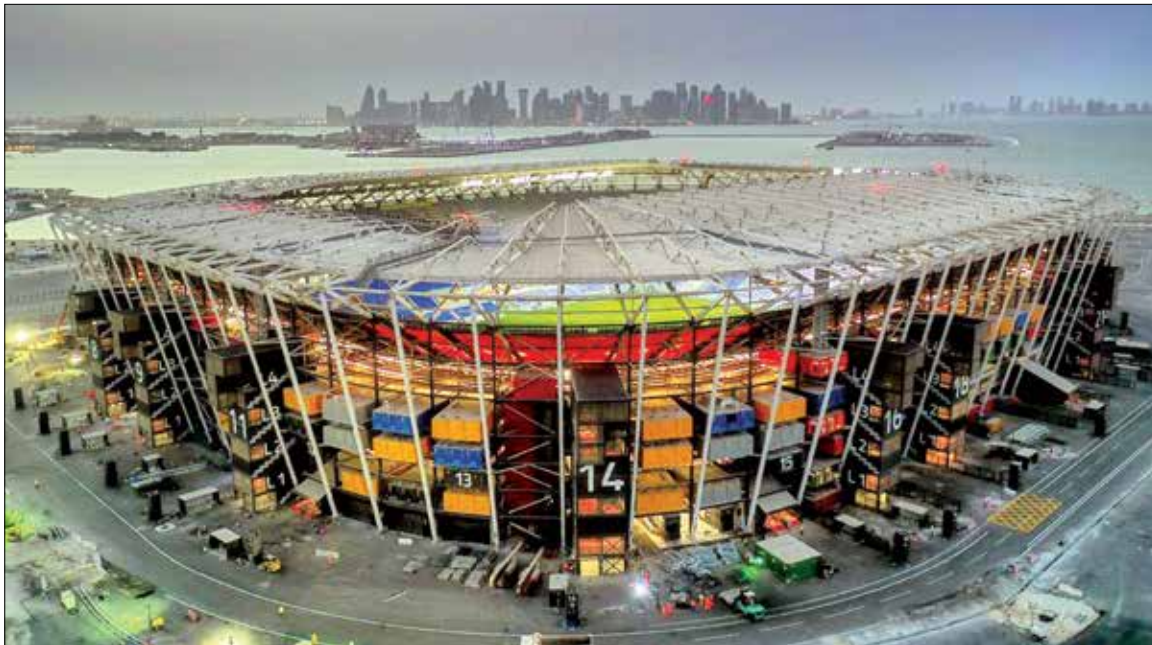
아흐마드 빈 알리 Ahmed Bin Ali 스타디움

알 라이얀 지역에 위치하며, 4만 석 규모로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8강전까지 경기가 열렸다. 물결 모양의 외관은 카타르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경기장 주변의 시설물은 모래 언덕과 사막을 형상화하여 카타르 특유의 자연을 반영하고 있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인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했으며 4만 석 규모로 8강전이 열렸다. 카타르는 대회가 끝난 후 2만 석의 관중석을 개발도상국 경기장 건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경기장은 축구 훈련장, 골프장, 상점 등 녹지 공간과 지속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974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완전 분리형 경기장으로 4만 석 규모다. 카타르의 고대 해양 및 무역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인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숫자 974는 카타르의 국제전화번호이자 건설에 사용된 선적 컨테이너의 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루사일 The Lusail 스타디움

도하 북쪽의 신도시 루사일에 위치한 8만 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아랍 전통의 파나르(제등) 또는 랜턴의 특징인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에서 영감을 얻었다. 구조는 고대 아랍과 이슬람 전역에서 사용했던 전통 음식 용기와 도구에 새겨진 조각을 반영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들의 국기가 도하 코르니쉬를 장식하고 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조 추첨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 옆에는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서 있다. _2022. 4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은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과 뿌듯함은 전 세계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아랍 지역에서 개최되는 매우 특별한 월드컵을 지켜보게 될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스포츠 이벤트가 가져올 영향은 단지 즐거움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은 관중 수와 참가자 수에 있어 역대 월드컵을 모두 뛰어넘은 기록을 수립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2022 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중 첫 번째 구장인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 월드컵 대회를 개최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이번 월드컵은 모든 아랍인들의 월드컵임을 강조했다. _2017. 5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주장 리오넬 메시에게 비슈트를 입혀 주고 있다. 왼쪽 사진은 우승컵을 건네는 모습. 그 옆에는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보인다.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에서 최종 우승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에필로그

이 소중한 나라에서 내가 보고 경험했던 것에 대한 내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 글이 부디 카타르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전했기를 바란다. 완벽은 알라의 전유물이며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 국가나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교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흔들리는 손은 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더십의 비전과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도전은 기회가 되고 고난은 성장과 발전, 성취가 될 수 있다. 이 여정에서 이 책 안에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한 조각의 정보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더라도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카타르에 대하여, 그리고 카타르가 지나온 과정에서 경험한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성공은 알라의 은총이다.

칼리드 이브라힘 알 살랄

특별한 감사

이 책의 편집을 맡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작가이자 언론인
이브라힘 바다위님께



칼리드 이브라힘 알 살랄

컴퓨터공학 학사-오레곤대학-미국

2014-2022 前GCC사무국 자문(걸프 마약퇴치 형사정보센터) - 카타르

2012 국가안보청 안보자문 - 쿠웨이트

2004-2009 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쿠웨이트대사관 군사사무소 부소장

1999-2004 쿠웨이트 국방부 제1국제협력국

1993-1998 쿠웨이트 국가방위군 정보체계센터소장

1991-1993 쿠웨이트 내무부 국제관계과장

1990-1991 사막의 폭풍작전 및 쿠웨이트 해방전 당시 미군 연락장교

1986-1988 쿠웨이트오일컴퍼니-정보시스템분석가

다수의 안보 및 군사, 민간, 외교기관에서 전략과 안보기획 관련 강사

완벽은 알라의 전유물이며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 국가나 민족은 없다. 그러나 가장 큰 교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흔들리는 손은 위대한 건축을 이루지 못한다.

리더십의 비전과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도전은 기회가 되고 고난은 성장과 발전, 성취가 될 수 있다. 이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모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의 의도는 한 조각의 정보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카타르가 지나온 여정에서 경험한 중요한 순간들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란다.